

출판N

2023.11. Vol.49

nzine.kpipa.or.kr

커버스토리 | 프로 독서러들의 세계

책벌레, 우리는 그들을 "프로 독서러"라고 부른다
프로 독서러의 책 읽기 노하우
프로 독서러들이 양서를 고르는 법

정책zoom

대학도서관 장서 폐기, 누구에게 그 권리가 있는가
장애인의 독서 권리 보장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출판
[2023 제3회 열린 포럼] 독서는 문화국가의 경쟁력이다

출판가 핫&콜

대구의 11년 차 독립출판서점, 더폴락 이야기
에듀테크 시대, 교육 저작권 침해 공방

인사이드

[작지만 강한 출판사를 만나다] 수류산방
박상일 방장·심세중 대표

해외리포트

2023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스케치

Now
Next
News
Network

책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매체로
다양한 목소리와 연대, 연결을 지향하는
출판 전문 매거진



<출판N> 웹진
<http://nzine.kpipa.or.kr>



+ 커버스토리	프로 독서러들의 세계	
	책벌레, 우리는 그들을 “프로 독서러”라고 부른다 · 박사(북칼럼니스트)	1
	프로 독서러의 책 읽기 노하우 · 김익한(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명예교수)	7
	프로 독서러들이 양서를 고르는 법 · 최승필(독서교육 전문가, 작가)	13
+ 정책증인	대학도서관 장서 폐기, 누구에게 그 권리가 있는가 · 노경희(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19
	장애인의 독서 권리 보장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출판 · 장보성(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사무관)	26
	[2023 제3회 열린 포럼] 독서는 문화국가의 경쟁력이다 · <출판N> 편집부	32
+ 출판가 핫&쿨	대구, 11년 차, 독립출판서점 더폴락 · 김인혜(독립출판물 서점 더폴락 운영자)	40
	에듀테크 시대, 교육 저작권 끓는점 오나 · 김명희(<전자신문> 기자)	47
+ 인사이트	[작지만 강한 출판사를 만나다] 수류산방 박상일 방장·심세중 대표 · 백창민(북헌터 대표)	53
+ 해외리포트	2023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스케치 · 최민경(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정책연구팀)	81

발행인 김준희 편집인 박찬수 편집위원 김세나, 김흥기, 류영호, 백창민 발행일 2023년 11월 9일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소 548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 대표전화 063-219-2700 E-mail nzine@kpipa.or.kr 홈페이지 www.kpipa.or.kr

기획/편집 출판정책연구팀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필자의 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 독서러들의 세계]
책벌레, 우리는 그들을 “프로 독서러”라고 부른다

박사(북칼럼니스트)

2023. 11.

사람에게 “벌레”라는 호칭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무늬충, 설명충, 진지충, 급식충, 틀딱충, 한남충, 맘충... 온갖 혐오표현들이 ‘충(蟲)’ 자를 붙이고 돌아다니고 있다. 사람들의 말 속에 어찌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지, 각종 ‘충’ 자를 이 잡듯 썩썩 잡아내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러다 멈칫할 때가 있다. 벌레 비유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호칭이 있기 때문이다. “책벌레”라는 이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이 호칭은 혐오표현일까? 책장과 종이 사이를 돌아다니는 책벌레의 삶이야말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벌레라는 호칭이 그들에게는 욕이 아니라 목표이고 명예인 게 아닐까?

그래도 사람을 벌레에 비유하는 게 좋을 리 없으니, 그들을 “프로 독서러”라고 불러본다. 그런데 단순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두 프로 독서러라고 하기는 어렵다. 책을 좋아하는 방식과 총위는 무척 다양하니까, 독서가 취미인 사람과 독서가 삶인 사람을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프로 독서러, 책벌레의 다른 이름

‘프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는 “그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프로’라는 말과 ‘독서러’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붙여 쓰기 어려운 단어다. 책을 읽는 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 돈을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그렇다. 하지만 조금 넓게 생각해보면 꽤 적절하다. 삶의 모든 면면에서 책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라면 프로 독서러라고 부를 만할 것이다.

독서와 삶은 아주 밀접한 사이는 아니다. 책 한 줄 안 읽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더구나 독서는 건강에 좋지 않다. 오랜 시간 몰두해서 책을 읽다보면 거북목과 척추 전만증, 고관절 이상, 녹내장, 비문증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 쉽다. 책 읽는 데는 손과 눈만 있으

면 된다. 나머지는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다. 아무리 독서가 인생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떠들 어보아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몸은 독서에 걸맞지 않다.

프로 독서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책을 멀리하기는커녕 자신이 걸릴지도 모르는 병과 독서의 올바른 자세에 관한 책을 찾아보는 사람들이다. 책 속에 길도 답도 있다는 것은 그들의 오랜 믿음이다. 계속 책을 읽을 수 있는 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도 당연히 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는 많은 조치들은 “어떻게 하면 오래 책을 읽을 수 있을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먹고, 관절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듣는다. 그들에게 ‘장수’란 몇 권의 책을 더 읽을 수 있는가의 단위이고, ‘근력’이란 벽돌 책을 들고 오래 읽을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다행인 것은 프로 독서러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든 그 분야에 관한 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는 온갖 다양한 분야에 관한 지식과 의견을 담은 책을 펴냈고, 보완하고 반박하는 책을 이어서 또 펴냈다. 지층처럼 쌓여 있는 책의 산은 책벌레들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척추와 같다.

책으로 가득 찬 라이프스타일

책은 프로 독서러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의식주만 해도 그렇다. ‘의’와 ‘식’에 대한 다양한 책과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도록 하자. ‘주’에 있어서 책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못해 가히 폭력적이라 할 만하다. 오카자키 다케시(岡崎武志)의 『장서의 괴로움』(2013)에는 지나친 책 수집 때문에 집이 무너질 뻔하거나 바닥이 꺼진 장서가들의 에피소드가 나온다. 책을 너무 많이 쌓아둔 탓에 2층 건물 전체가 기울어진 시인이자 잡지 편집자 시미즈 데쓰오(清水徹男), 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방바닥이 꺼진 서재의 주인인 철학자 구시다 마고이치(串田孫一) 등... 목조 건물이 많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책 때문에 집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지만, 온통 집안을 책에 점령당한 이들의 생활은 남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일단 늘 새끼발가락이 얼얼한 상태다. 부딪칠 책 모서리가 널렸기 때문이다.

작가 앤 패디먼(Anne Fadiman)의 『서재 결혼 시키기』(1998)는 그런 프로 독서러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프로 독서러 둘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 혹은 두 집안의 결합을 넘어선다. 서재를 결혼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읽다보면, 결혼이라는 것을 과연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어려움이 그렇듯 돈이 있다면 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다. 20만 권에 달하는 책을 보관하기 위해 도쿄에 ‘고양이 빌딩’을 세운 작가이자 평론가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처럼 말이다.

프로 독서러들은 만나면 늘 “책을 버려야 하는데”를 주제로 장탄식을 나누지만, 누군가 대대적인 책 정리를 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득달같이 달려가 책 목록을 뒤져보는 사람들이다. 커피의 맛보다 그곳에 구비된 장서의 질로 카페의 수준을 가늠하고, 집값보다는 그 동네에 도서관과 서점이 몇 개 있는지로 지역의 상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프로 독서러에게는 공간의 분위기보다 그곳에 비치된 책의 제목이 더 중요하다.

인생의 모든 것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

그런 한결같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프로 독서러들에게 책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대한 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발판을 대고 그때그때 삶에 필요한 것을 짚짚 받아들인다. 책은 지식의 보고라지만, '모든 것'에는 지식뿐 아니라 감정도 해당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지식과 감정, 객관과 주관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책으로 배운다.

한때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사실 프로 독서러들은 연애만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림책 작가 키티 크라우더(Kitty Crowther)는 자신의 독서를 “단어를 모으는 행위”라고 말한다.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를 모으면서 그는 “이전까지 몰랐던 감정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감정의 이름을 배우면 모호한 감각에서 정확한 감정을 가려낼 수 있다. 그렇게 안팎의 세계는 풍부해진다.

책에서 연애를 배운 이들이 연애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아마도 대부분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프로 독서러가 다른 프로 독서러를 만났을 때 각별한 마음이 되는 건 책의 마술 중의 하나다.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서재에 있는 책 목록이나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건 쉽지 않지만 프로 독서러끼리 책을 매개로 연애를 하는 건 꽤 성공률이 높다. 사랑의 밑거름보다 독서 토론이 더 많이 오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말이다.

연애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다르지 않다. 지인의 집에 초

대받아 가면 가장 먼저 책장을 살펴보고, 밖에서 만나면 들고 다니는 책의 제목을 눈여겨본다. 좋아하는 책이 같다면 신이 나고, 내가 싫어하는 책을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 프로 독서러들은 인간관계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은 실패하기 어렵다. 기준이 정확하다기보다는 기준에 맞추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면 프로 독서러는 과감하게 인간관계를 포기한다. 외로움 틈이 어디 있겠는가. 책이 있는데.

기준이 좁고 분명한 것이 좋은 점도 있다. 프로 독서러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안다. 무엇을 축하해야 하는지, 선물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금방 알아챈다. 앤 패디먼의 남편 조지는 그에게 생일 선물로 9kg의 책을 안겨준다. 30만 권의 책이 들어차 있는 헌 책방에서 일곱 시간을 보낸 뒤 그는 행복하게 9kg의 책을 골라들고 나오는데, “얇은 책 9kg은 상싱한 캐비아 1kg보다 적어도 9배는 맛있다.”라는 그의 말에 프로 독서러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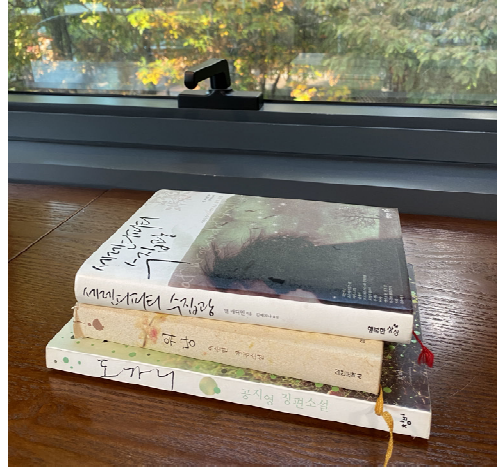
프로 독서러들 사이에서는 화젯거리가 떨어질 날이 없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을 추천하면서 공감대를 더 두툼하게 쌓아간다. 그들의 인간관계에 있어 책은 식빵과 식빵 사이의 잼과 같다. 상대와 나를 달콤하게 찰싹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책 때문에 이견이 생기면 그만큼 차갑고 매정하게 돌아서지만.

책으로 이루는 워라벨

책을 읽는다는 것만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 중에는 프로 독서러가 많다. 수많은 작가와 평론가, 편집자, 서점 주인 등 책을 쓰고 만들고 유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프로 독서러였다. 책을 읽는 것은 자연스럽게 책을 쓰는 것과 연결된다. “책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놀라운 점은 그들은 일할 때뿐 아니라 쉴 때도 책을 계속 읽는다는 것이다.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Karl Marx)는 일을 하면서 책을 읽다가 쉴 때는 다른 종류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읽는 책의 장르는 바뀔 지언정, 독서 자체는 멈추지 않는다. 여행 갈 때 들고 가는 책, 휴가 갈 때 들고 가는 책, 일할 때 읽는 책, 화장실에 비치해 놓는 책, 자기 전에 읽는 책... 각각의 경우마다 성격과 길이별로 분류된 책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쉴 땐 쉬라고 한다면, 그들은 놀란 눈으로 말할 것이다. ‘쉬고 있는데요? 이보다 어떻게 더 편하게 쉴 수 있나요?’

프로 독서러들만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들은 책을 읽으며 일하고 쉴 때도 책을 읽으며, 새로운 취미가 생기거나 여가 활동을 해야 할 때 또한 책을 찾아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취미에 관심이 생기면 책 검색부터 시작한다는 암묵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스포츠? 책을 찾아보자. 만드는 취미? 책을 찾아보면 있겠지. 여행을 가고? 일단 책부터 찾아보고. 수집, 덕질, 사회 공헌 등 어느 분야이든 이에 관해 다루는 책이 없는 분야는 거의 없다. 프로 독서러들에게 책은 거대한 방주와 같다. 혹은 평생을 살아온 마을과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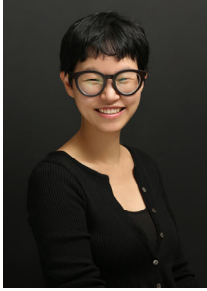


어디에 가든 꼭 책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것도 프로 독서러들의 특징이다.

시작도 즐거움, 결국은 즐거움

유용함을 떠나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꺾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프로 독서러에게 책을 왜 읽는지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특징이다. 카즈키 미야(香月美夜)의 『책벌레의 하극상』(2015)은 책을 무척 좋아하던 주인공이 죽은 뒤 책이 없는 세계에 다시 태어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중세시대를 닮은, 한편으로는 마법이 일상적인 판타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주인공의 오직 하나의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의 내용은 상관없다. 씩씩한 주인공은 “읽을 수 있는 책이 없다면, 만들면 되지.”라는 단순한 목표를 향해 일로매진한다. 진흙 판을 구워서 글을 새기거나 식물로 종이를 만드는, 책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부터 차근차근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책, 그게 도대체 뭔데?’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목표에 공감하는 프로 독서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책이 아니어도 읽을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인터넷 사이트와 SNS, 문자만으로도 일용할 글자들은 충분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전히, 끝끝내 책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쌀벌레가 쌀을 먹어야 하듯이 책벌레는 책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언제부터인가 사양 산업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출판계는 여전히 오늘도 성업 중이다. 아마도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프로 독서러들, 그들이 느끼는 책 읽는 즐거움은 꽤 끈질기니까.



박사(북칼럼니스트)

각종 일간지를 비롯해, 월간지와 주간지에 책과 문화와 관련한 글을 기고했다. KBS TV “책읽는 밤”, KBS 라디오 “신성원의 문화읽기”,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 MBC, 교통방송 등의 다양한 방송에서 책과 문화를 꾸준히 소개해 왔다. 현재 KBS 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에서 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오디오클럽 “글쓰기 바이블”에서 강원국, 백승권과 함께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양여자대학교에서 강의했고, 온라인 강의사이트 백미인에서 강의 중이다. 저서로는 『치킨에 다리가 하나여도 웃을 수 있다면』(허밍버드, 2019), 『은하철도999, 너의 별에 데려다줄게』(파람북, 2019), 『빈칸 책』(홍시, 2019), 『지도는 지구보다 크다』(궁리, 2009), 『가꾼다는 것』(너머학교, 2017) 등이 있다.

catwings@gmail.com

[프로 독서러들의 세계]
프로 독서러의 책 읽기 노하우

김익한(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명예교수)

2023. 11.

들어가며

책 잘 읽는 사람이 참 많다. 블로그 글을 읽다보면 심지어는 일주일에 2권 이상, 한 달에 10여 권씩 책을 읽어 짓히는 독서자들이 자주 발견된다. 독서를 통해 작가가 된 사람도 있고, 독서 모임을 업으로 하게 된 사람도 꽤 있다. '선공부 후실행'이 일상이 된 사람들은, 책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는 무엇이든 척척 잘 해낸다. 이렇다 보니 자기계발 세계에서 독서력은 이미 필수 능력이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 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심지어 수험생들조차 책 안에서 '비법'을 찾는다.

이런 '프로 독서러'들은 어떻게 책을 읽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책 속에서 그런 '비법'을 찾아내는 것일까? 독서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들의 경지는 신비로울 뿐이다. 그런데 '프로 독서러'들의 실제 독서 행위를 들여다보면 그 '신비'의 실체는 지극히 단순하다. 몇 가지 팁이 몸에 착 달라붙어 있고, 그 팁들 안에 사람의 인지, 융합, 표출의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다.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은 습관적 실행을 뜻하고, '메커니즘'이란 행위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뭔가를 잘하려면 이렇게 복잡 역량을 습관적으로 행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독서에 필요한 복잡 역량을 몸에 익히고, 책을 읽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우리 모두는 '프로 독서러'가 될 수 있다.

눈 운동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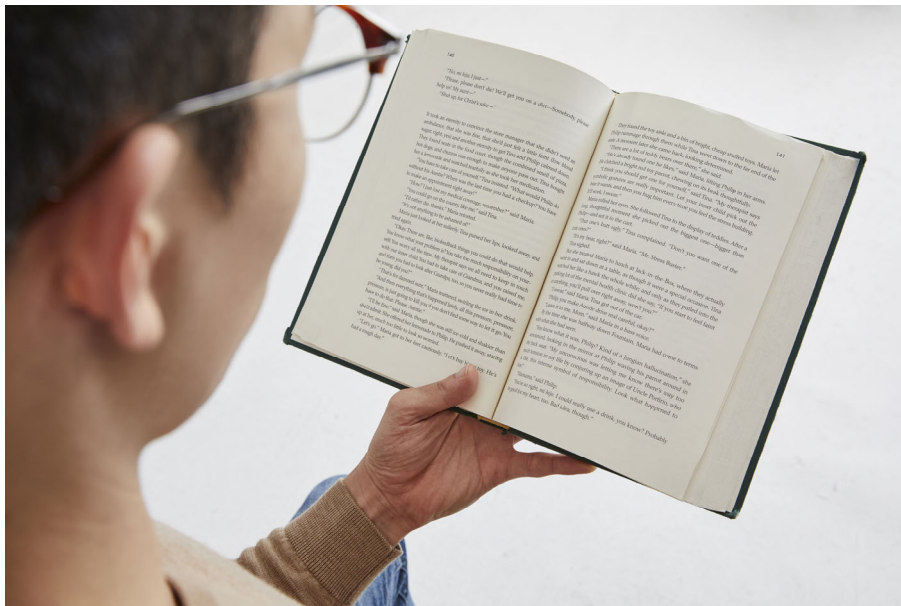
책을 잘 읽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단어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이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학창 시절에 항상 교과서라는 책을 읽고 살아왔다는 착각이 이런 무지를 낳는다. 교과서를 읽는 것은 다른 독서 행위와 완전히 다르다. 선생님이 내용을 설명해주니 사전 지식을 충분히 쌓은 상태에서 교과서를 읽는다. 또 시험 준비를 위해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으니 우리는 항상 회독 방법으로 교과서를

독서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책은 내용을 미리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고, 책 몇 권을 한 학기 내내 반복해서 읽을 시간적 여유도 없다. 따라서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 권씩 책을 읽는 '프로 독서러'의 독서 방법은 학창 시절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신국판 사이즈의 책에는 보통 10cm 정도 길이의 행에 7~10개의 단어가 들어 있고, 한 쪽에는 그런 행이 22행가량 배치되어 있다. 이것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어 몇 개를 한꺼번에 보는 우를 범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눈은 5cm 이상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독서를 할 때 눈동자의 움직임과 뇌의 인식 과정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결과 단어들의 의미 인식에 실패하기 십상이고, 의미가 들어오지 않으니 지루하고 졸음이 금방 쏟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프로 독서러'들의 대부분은 눈동자를 움직이며 단어 단위 혹은 띄어쓰기 단위의 글자들에 초점을 맞춰 책을 읽는다. 두세 단어 단위를 흐리멍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카메라 렌즈에 피사체가 초점이 딱 맞는 상태로 보이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초점이 딱딱 맞춰진 상태에서 읽는 것이다. 10cm 정도인 한 행을 읽을 때 눈동자는 행의 좌측 끝에서부터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를 쭉 보면서 행의 오른쪽 끝으로 이동한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1.5초 내지 2초 정도이다. 20행이 조금 넘는 한 쪽을 읽는 데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정상적인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눈 운동 독서는 매일 10분씩 한 달을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가능해진다. 눈동자가 10cm의 행을 1.5초 정도의 정속도로 좌에서 우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 습관을 몸에 붙여야 한다. 20일 정도 반복해서 연습하면 모든 단어들이 포커싱 된 상태로 눈에 쑥쑥 들어오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가능해지면 그 다음 한 달 정도는 뜻 파악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 단 어들이 읽히기는 하는데 정작 뜻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눈 근육에 신경을 쓰다 보니 뜻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뇌의 반응 속도가 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다 1개월 정도 매일 10분 동안 뜻 파악에 신경을 쓰며 눈 운동 독서 훈련을 지속하면 단어들도 쑥쑥 들어오고 뜻도 선명하게 들어오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평생을 써먹을 눈 운동 독서력을 키우는 데 2개월이 걸린다면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눈동자를 움직이는 덕분에 졸음이 전혀 오지 않고, 게다가 마치 빨대로 주스를 빨아 마시듯 단어의 뜻이 뇌에 쑥쑥 들어오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데, 2개월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이 산을 넘어야 우리는 ‘프로 독서러’가 되는 초입에 들어설 수 있다.

생각 독서와 메모 독서

눈이 독서에 최적화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생각을 최적화시킬 차례다. ‘프로 독서러’들은 공통적으로 생각이 많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융합해서 자기 나름의 서사를 생각해내고, 그 생각을 토대로 책의 내용을 기억한다.

‘순간의 생각’을 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이 자기 것이 되기 어렵다. 독서는 의미를 이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감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경험의 과정과는 전혀 다른 세계이다. 경험 기억에 비해 의미 기억은 어렵듯할 때가 많아서 ‘프로 독서러’들이 하는 것처럼 자주 생각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세 문단을 읽고는 머리를 들고 ‘아하,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순간의 생각’을 해준다. 이것을 반복하다가 두세 쪽을 읽고 ‘순간의 생각’들을 쭉 이어 ‘생각의 이음’을 해주는 것도 필수다.

‘프로 독서러’들의 생각 독서법은 장 단위로 완성된다. 예를 들어 300쪽 짜리 책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50여 쪽 분량의 한 개 장을 읽고 난 다음 ‘생각의 이음’을 완성한다는 이야기다. ‘이 장에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였지?’, ‘그 질문에 대해 저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저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군.’ 하고 장 단위로 의미 서사를 생각해본다. 좀 더 나아가간다면,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보는 ‘자기화 생각’의 단계로 독서 방법을 진화시킬 수도 있다.

대부분의 ‘프로 독서러’들은 생각 독서를 반복해 책 한 권의 내용 전체를 ‘생각의 이음’으로 기억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한 개 장 단위로 ‘생각의 이음’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50여 쪽을 읽었을 뿐인데 저자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 질문에 대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순서로 했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2~3권의 책을 ‘순간의 생각’과 ‘생각의 이음’을 반복하며 읽으면 놀랍게도 장 단위로 저자의 서사가 꽤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생각의 이음’의 단위가 책 한 권으로 확장된다. 책 한 권을 단위로 저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독서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더하여 독서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는 수단이 바로 메모다. 메모 독서가 좋다고 하니, 한두 쪽을 읽고는 욕심을 내서 아주 깨알같이 상세한 요약 메모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면 결국 시간과 정성을 너무 쏟아 부어서 이내 독서를 포기해버리기 십상이다. 요약 내용이 너무 많으니 메모를 해봤자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 '프로 독서러'들은 메모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책에 100가지가 쓰여 있어도 내가 소화해서 내 것으로 남길 수 있는 내용은 20~30가지 정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 독서러'들은 50여 쪽 되는 한 개 장을 읽고 '생각의 이음'을 쭉 한 다음 핵심이 되는 것만 5~10줄 정도, 그것도 키워드 위주로만 간단히 메모한다. 나머지 내용은 내 잠재성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장 단위 메모를 반복하고 나서 메모한 것을 쭉 한꺼번에 보고 책 한 권의 전체 내용을 '생각의 이음' 방식으로 되뇌어본다. '아, 이 책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 저것, 저저것이구나.' 하고,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누적적으로 확장되는 독서의 진짜 기쁨을 만끽한다. '프로 독서러'들이 독서 감상록을 자주 쓰는 이유는 그 기쁨을 표현해보고 싶은 욕구가 마구 일어나기 때문이다. 의무감에 우격다짐으로 쓰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독서 감상록이 이렇게 탄생한다. 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쁨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어떻게 책이 삶의 기쁨이자 지적 성장의 원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존재적 독서

눈 운동 독서, 생각 독서, 메모 독서를 익혀 눈 근육과 뇌 근육 모두가 독서에 최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읽기가 그다지 즐겁지 않은 사람도 꽤 있다. 독서를 마치 고시 공부하듯 욕심을 내서 하면 독서의 기쁨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 목적이 승하면 과정이 정당하지 못할 수 있듯, 지식 욕심이 강하면 책을 읽어도 저자와 깨달음의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소유냐 존재냐』

(1976)에서 존재적 실존 양식(이하 존재적이라고 약함)으로서의 독서를 언급한 것은 참으로 탁월하다. '프로 독서러'의 기본 능력을 갖추어도 지식 소유욕을 내려놓고 대화하듯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이 내 삶에 스며들지 않는다. 물론 기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신경 쓸 곳이 많아 존재적 독서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산책을 하다 우연히 마주한 구절초의 하얀 꽃이 너무 예쁘다. '와, 어쩔 저렇게 맑디맑으면서도 강인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본래의 존재 가치와 조우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환희라 칭한 것이 이해가 간다. 이처럼 어떤 이는 구절초의 하얀 꽃을 보고 환희의 감각을 마음에 담으며 미소 짓는다. 구절초 꽃의 본래적 가치와의 만남은 그에게 오래오래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는다. 책과의 만남이 이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까? 에리히 프롬은 이런 감각의 독서를 존재적 독서라 이름 지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구절초 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한 움큼을 꺾어 거실에 꽃꽂이를 해두었다. 꽃은 며칠이 지나 시들어 버리고 만다.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힘주어 공부하듯 읽는 독서를 에리히 프롬은 소유적 독서라 부르며 존재적 독서와 구별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독서를 하고자 하는가? 꽃을 마음에 담아 교감하는 독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집 거실에 꽃꽂이를 하는 독서를 할 것인가? 진정한 '프로 독서러'는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외워 내 지식으로 소유하려고 기를 쓰지 않는다. 그저 저자의 말을 마음에 담아 자신의 생각과 융합하면서 기쁨을 느낄 뿐이다. 이렇게 존재적 독서를 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책과 함께 존재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

나가며

독서가 기쁨이라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야 한다. '프로 독서러'라 하면 엄청 열심히 책을 읽는 사람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다. 진정한 '프로 독서러'는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상태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또 책을 읽음으로써 저자의 이야기가 몸에 스며드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프로 독서러'는 자연스러운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신을 생성(becoming)시킨다.

눈 운동 독서, 생각 독서, 메모 독서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힘을 빼고 책을 읽기 위해서이다. 지식을 소유하려 애쓰지 않고 존재적으로 내 몸에 스미도록 하는 이유는 책이 우리 자신을 생성시키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이다. 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독서 '비법'이다.



김익한(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명예교수)

기록학자로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에서 25년간 교수로 봉직했다. 30만 구독자와 함께 ‘이타성의 자기계발’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 “김교수의 세 가지”의 크리에이터이자 자기계발 전문 강의 플랫폼 “아이캔대학(iCanU)”의 학장이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거인의 노트』(다산북스, 2023)가 있다.

ikhan@mju.ac.kr

www.youtube.com/@ican

[프로 독서러들의 세계]
프로 독서러들이 양서를 고르는 법

최승필(독서교육 전문가, 작가)

2023. 11.

양서를 고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미묘한 문제다. 정평이 난 학자이자 독서가인 어떤 이를 모셔온다고 해보자. 그에게 100권의 책을 보여준 후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겨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워낙 독서에 도가 튼 사람이므로 어렵지 않게 그 미션을 해낼 것이다. 그가 매긴 순위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답다.

자, 이번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그 방으로 들어간다고 해보자. 정평이 난 학자이자 독서가인 이가 꼽은 최고의 책을 펼쳐서 읽는다. 여러분도 그 책을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할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좋은 하지만 최고는 아니야.’ 정도는 양반이고 ‘더럽게 재미없네.’ 고개를 절레절레 젓거나 ‘도저히 못 읽어주겠어.’ 책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도 부지기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일비재한 일이다. 현대인이라면 읽어야만 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지식도서라 큰맘 먹고 펼쳤는데 막상 읽어보니 도저히 읽을 물건이 아니었거나, 고전 명작이라고 해서 도전했는데 남는 건 왜 좋은지 알 수 없는 어리둥절함뿐이라거나 하는.

객관적으로 좋은 책, 양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개개인의 독서에서는 이 객관성이 붕괴된다. 독서는 책과 독자가 만나서 일으키는 일종의 화학작용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책도 독자인 나 자신이 그 책과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책은 라면 냄비 받침에 불과하다. 읽어봤자 아무런 효용감을 느낄 수 없다. 반대로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책이라도 독자인 나 자신이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다면 그 책은 세상 그 어떤 책보다 가치 있는 책이다. 책의 가치는 읽고 이해하는 과정의 강도, 화학작용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화학작용은 책을 읽는 독자의 흥미와 독서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아무리 뛰어난 독서가도 흥미를 느낄 수 없는 책은 읽을 수 없고, 아무리 흥미를 느껴도 내게 어려운 책은 읽지 못하는 법이다. 따라서 책을 고르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는 것. ‘프로 독서러’도 이 기준은 똑같다. 그럼에도 그들이 객관적으로 훌륭한 책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독서 이력만큼이나 성숙한 취향과 뛰어난 독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양서를 고르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것이다. 양서를 고르는 법을 배워서

프로 독서러가 되는 게 아니라 프로 독서러가 되었기 때문에 양서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난 프로 독서러가 아닌데 어찌라는 거냐.’ 답답해 할 필요는 없다.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이 아닌데 어찌라는 거냐.’ 투덜거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 된다. 오른 만큼 고도가 높아진다. 읽은 만큼 보인다. 양서를 알아보는 독서 능력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면 이 산은 야트막한 뒷동산에 불과하다. 엉뚱한 길로 가지만 앓는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금세 정상에 당도할 수 있다.



책을 고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독서가가 태어나는 방식은 딱 하나다. 폭 빠져서 읽게 되는 책 한 권을 만나는 것. 이것 말고는 독서가가 되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런데 의외로 이 뻘한 길을 두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이들이 많다. ‘폭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양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책을 찾아 읽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권장 도서, 추천 도서, 교과 연계 도서를 읽게 하고, 어른들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유명인의 추천 도서, 고전 명작을 찾아 읽으려고 한다. 책을 읽는 자기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책 선택은 당연히 독자인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그렇게 선택한 책이 내 흥미, 내 독서 능력에 맞는 것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좋다고 하니 읽긴 하는데 재미도, 의미도 잘 모르겠는 묘한 책 읽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 대개 결론은 둘 중 하나다. 시작하자마자 ‘아, 이건 아니다.’ 눈치를 채고 그 즉시 하산해 작심삼일 정도로 독서를 끝내거나, 불굴의 의지로 1년을 읽었지만 독서를 시작도 못한 희한한 상태에 빠지거나.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프로 독서러들이 무슨 책을 읽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책을 고르느냐이

다. 프로 독서러도 사람들이 좋다는 책을 읽을 때가 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 호기심이 일 때 그럴 뿐이다. 그들은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 구경을 하고 직접 읽을 책을 고른다.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옷 구경을 타인에게 양보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독서가에게 있어 책을 구경하고 선택하는 기쁨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독서가들은 ‘오늘 또 어떤 책을 만나게 될 것인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서가로 걸어 들어간다. 그리고 서가에 머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고른다. 겉으로 보이는 방식은 특별할 게 없다. 책등을 눈으로 훑다가 흥미가 가는 제목을 발견하면 그 책을 뽑는다. 책의 광고판에 해당하는 앞뒤 표지를 눈으로 쓱 훑는다. 이 관문까지 통과한 책이라면 펼쳐서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목차를 쓱 훑어본 후 문학 작품이라면 본문의 첫 부분을, 지식도서라면 들어가는 말의 첫 부분을 살펴본다. 그러면 느낌이 온다. ‘오, 이 책 장난 아닌데.’

흥미가 가는 제목을 발견하는 데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 2분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제목, 앞뒤 표지, 작가까지 확인한 것으로 낙점이 끝나기도 한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는데도 실패 확률은 거의 없다. 여지없이 만족스러운 책, 동공지진을 일으키는 책, 심지어 객관적으로도 좋은 책이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책, 좋은 책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수없이 많은 책을 고르고 읽어봤으니까. 그 말인즉슨 책을 고르고 읽어본 경험이 일천한 사람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할 거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도 해야 한다. 양서를 고르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리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운 과정도 아니다. 좋은 책,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라 내가 꼭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찾겠다, 이 목표 하나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이 감각을 기를 수 있다.



꼭 빠져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면 생기는 일

앞서 프로 독서러가 어떻게 책을 고르는지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똑같이 따라 한다 하더라도 초보 독서가의 책 고르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걸어 들어갈 때 설레야지 작정

한다고 설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목과 앞뒤 표지는 그렇다 치고 작가나 목차는 왜 보라는 건지 납득도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는 것 자체가 성가신 업무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초보 독서가는 어떻게 책을 골라야 할까. 책 제목에 흥미가 간다 싶으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책의 첫 부분 세 문단을 읽어보면 된다. 술술 읽히면 통과, 뭔가 뻑뻑하고 어렵다 싶으면 탈락. 이렇게 단계를 대폭 줄이되 한 번에 많은 책을 고른다. 서점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돈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도서관 대출증의 한도를 꼭 채워 책을 빌린 후 하루에 한 번 책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책 한 권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다. 딱 30페이지만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다, 내가 고른 책이 내가 생각했던 재미있는 책인지 아닌지. 내 예상과 달리 재미없는 책이라면 30페이지까지만 읽고 자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꽤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별 부담 없이 책을 고르고 확인하는 경험을 얻었고, 매일 30페이지를 읽으면서 독서 근육을 풀지 않았는가.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책 고르는 과정에 성의가 있었다면 '30페이지만 읽어야지' 하는 생각을 잊게 만드는 책, 나도 모르는 새 100페이지까지 읽게 되는 책이 사흘 안에 반드시 나온다. 바로 그 책이 내가 끝까지 읽어야 할 책, 내가 고른 나에게 맞는 책이다.

천운이 따라 그 책이 내 마음을 뒤흔들 정도로 재미있는 책이었다면 그 한 권으로 프로 독서러와 비슷한 심리 상태, 즉 도서관 갈 생각을 하면 설레고 빨리 다른 책을 읽고 싶은 상태가 된다. 정말 운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책 한 권 읽는 거 별 거 아니군' 정도의 감상은 얻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책 반납 기한이 돌아오면 다시 도서관에 간다. 빌린 책을 다 검토하지 못했어도 상관없다. 싹다 반납하고 다시 서가를 탐색하며 흥미로운 책을 찾는다. 그렇게 빌린 책들로 다시 30페이지 읽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독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만약 이 독서 생활을 진짜로 한다면,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찾아야지.'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그런 책을 찾아내 푹 빠져 읽는다면 누구라도 독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책 읽는 재미도 재미지만 책 한 권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성큼성큼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원활해지고, 점점 더 세세히 느끼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책을 고르는 감각도 급속도로 향상돼 나에게 맞는 책을 곧잘 알아볼 수 있다. 도서관 문턱을 넘는 재미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사람, 진짜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나에게 맞는 책, 내가 푹 빠져서 읽게 되는 책이 객관적으로 좋은 책, 양서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프로 독서러도 처음에는 햇병아리 초보 독서가였다. 푹 빠져서 읽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프로 독서러로 성장한 것이다.

자기 언어 수준, 취향에 맞는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책이 독자의 독서 능력과 취향을 가장 큰 폭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프로 독서러는 객관적으로 좋은 책, 양서를 찾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라기보다는 그런 책을 좋아하는 취향, 그런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서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들도 '이 책 재미있겠는데.' 하고 책을 고른다. 다만 그렇게 고른 책이 객관적으로 좋은 책, 양서일 확률이 높을 뿐이다. 독서의 주인은 언제나 책을 읽는 독자 자신이다. 남들이 뭐라 하건 사활을 걸고 '내가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찾아 읽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책 고르는 법이고, 그렇게 고른 책만이 독자를 성장시킬 수 있다.



함정에 빠지는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인생 마지막 책인 것처럼 읽자. 독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 책 빨리 읽고 다음 책 읽어야지, 마음먹는 순간 속독을 하게 되고, 속독을 하면 독서의 질은 급격히 낮아진다.

둘째,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읽는다'는 자세로 읽자. 실제로 글은 글을 쓴 사람이 한 생각, 그것도 엄밀하게 정제한 생각이다. '생각을 읽는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책을 깊이 읽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독서가가 된다는 것은 서가라는 생각의 바다를 여행하는 항해자가 되는 일이다. 이 여행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내 다음 여행지가 어디가 될지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다음 책을 찾기 위해 서가로 걸어 들어갔을 때, 서가에 꽂힌 그 많은 책 속에서 내 흥미를 잡아끄는 책 한 권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번 여행지는 바로 너구나. 정해진 항로를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의 감각에 의존하는 여행인 셈이다. 기준은 언제나 똑같다. 지금 내가 가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나를 타격해 내 마음의 모양, 내 생각의 모양을 바꿔놓을 수 있는 책을 찾는 것.

1년쯤 지나 내가 읽었던 책들을 뒤돌아보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골랐을 뿐인데 그 책들 사이에서 어떤 연결성이, 묘한 맥락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흐름이 바로 1년간 내가 지나온 생각의 여정, 내 마음의 항적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 재미있게 읽었던 책과 내가 지금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의 현저한 닮음도 발견할 수 있다. 처음이었다면 재미있다고 느끼지 못했을 책, 객관적으로 더 양서에 가까운 책을 읽고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첫 책을 비하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때는 그 책이 내 최고의 양서였고, 내 독서 여정의 출발점을 마련해준 고마운 책이니까. 오히려 추억에 젖게 되겠지, 우리가 우리 어린 시절의 유치함을 소중히 추억하는 것처럼.



최승필(독서교육 전문가, 작가)

독서교육 전문가이자 어린이 청소년 지식도서 작가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공독서가”라는 작은 책방에서 독서모임을 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닌다. 쓴 책으로는 『공부머리 독서법』(책구루, 2018), 『에밀 졸라 씨, 진실이란 무엇인가요?』(책마루, 2014), 『아빠가 들려주는 진화의 비밀, 사람이 뭐야』(창비, 2015) 등이 있다.

gongdock@naver.com

www.instagram.com/gongdockbook

www.youtube.com/@gongdockbooks

대학도서관 장서 폐기, 누구에게 그 권리가 있는가

노경희(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2023. 11.

100년 전에도 우리는 책을 버렸다

금년 봄 무렵부터, 조선고판본과 조선고활자본의 잔권(殘卷)이 자주 세상에 나왔다. 나는 이에 대해 별반 관심 없이 그저 특이한 현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들으니 조선의 종이를 매매하는 상인들이 구입 범위를 지방으로 넓혀 최근에는 경상도 지역에까지 이르게 된 결과, 해당 지방의 고서들이 적지 않게 경성에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대부분은 ‘한 관에 얼마’라는 식으로 하여 종이 원료로 수거되는 운명을 맞이하지만, ‘책 한 권에 얼마’라는 식으로 파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책들은 따로 뽑아 고서로 팔렸다. 처음에 이상하다고 여긴 현상은 이렇게 들으니 조금도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 …(중략)… 우리들은 일단 철저히 문헌 수집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대규모의 실물 자료를 수집할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실물을 문헌과 대비하기 전에 먼저 실물 상호 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폐지의 회수가 강조되는 작금의 상황으로 인해 단편만 남은 고서의 운명이 조석(朝夕)에 달려 있다. 『서영(書影)』 제2집의 제작은 결코 한가한 이들의 한가한 작업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다.

-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서영' 제2집 후기」, 『서물동호회(書物同好會) 회보』 2집, 1938, 9쪽

1938년 경성에 거주한 일본인들 중 조선의 고서와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만든 모임인 ‘서물동호회’에서 조선의 고서들 중 진귀한 책들을 뽑아 영인(影印)하여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서영」이라는 그림엽서집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위의 글은 그 두 번째 그림엽서집을 편집한 스에마쓰 야스카즈라는 한 수집가의 후기이다(노경희, 「서영(書影) - 조선의 옛 책으로 만든 그림엽서」, 『문헌과해석』 92, 문헌과해석사, 2023).

이 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제시되었다. 이 글이 쓰일 당시인 1938년 조선의 종이를 매매하는 상인들이 지방으로까지 구입 범위를 넓히면서 많은 고서들이 경성에 모였고, 그중 상당 부분은 ‘한 관에 얼마’라는 무게 단위로 판매되면서 종이 원료로 수거되었지만, 일부 고서들은 ‘책 한 권에 얼마’라는 식으로 따로 판매되었다. 그런데 이 책들에 조선고활자 그것도 조선전기 금속활자본 등의 귀중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다. 당시 ‘조선고활자로 찍은 한적(漢籍)’을 중심으로 그림엽서집을 만들고 있던 일본인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높은 평가를 받는 조선의 고활자본 연구를 위해 실물 문헌이 중요한

데 지금 전국 규모 ‘폐지의 회수’라는 큰 기회를 얻은 상황에서 고서 수집에 조선 고서의 운명 또한 달려 있다고 자신들의 작업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귀중본 고서들이 일본 수집가의 손에 대량으로 들어갔다.

현재 일본에는 우리나라 고서가 수만 점 소장되어 있다. 그중 상당수의 자료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장서가들의 수집을 통해 넘어간 것들이다. 그에 대해 식민지의 약자적 상황을 이용한 일본인들의 문화 침탈이라며 비판적으로 보던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시선이였다. 그런데 위의 기록을 보면, 당시 고서의 가치를 모르던 후손들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장서를 ‘폐지’로 여겨 헐값으로 장사꾼들에게 넘기고, 이를 수집하는 것이 조선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책무라고 당당히 합리화하며 수집하던 일본인들이 있었다. 전통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시기에 책의 운명은 이렇게 폐휴지 취급을 받았고, 그로부터 100년도 지나지 않은 오늘날 우리는 뒤늦게 그 고서들의 가치를 깨닫고는 이를 다시 환수·반환·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돌려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일본 교토(京都) 대학의 문학부 도서관

‘진리의 전당’ 대학도서관에서 사라져가는 책들

얼마 전 한 일간지 신문에서 “古書의 명복을 빕니다...전국 대학 ‘책 장례식’”(《조선일보》, 2023년 10월 4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오고, 이후 대학도서관을 비롯하여 국공사립 도서관의 폐관과 장서 폐기 문제가 한참 화제에 올랐다. 당시 그 기사에서 장서의 절반을 폐기할 예정이라 언급된 대학은 한 광역시의 유일한 종합 대학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그 결정은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소요를 가져왔다. 필자는 바로 그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장서 폐기 계획이 교원들에게 처음 전달된 이후, 이를 반대하는 편에 서서 사태를 해결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학도서관 장서 폐기가 단순히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과 도서관 그

리고 더 나아가 출판계와 인문학계까지 연동된 큰 사안임을 깨달았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한 ‘인문대학 교원이자 인문학 연구자로서의 입장’을 바탕으로 두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할 과제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글을 쓴다.

필자의 소속 대학에서 내세운 장서 폐기에 대한 가장 큰 명분은 ‘미래형 도서관’ 구축으로, 이를 위해 중앙도서관 절반의 서가를 없애고 디지털 열람실·전시관·노트북존 등 학생들의 소통과 편의를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도서’를 보관하는 장소인 ‘도서관’에서 책을 없애고 다른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 황당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최근 5년간 책을 없애고 서가 공간을 전시관과 카페 등으로 바꾼 대학은 28곳이었으며, 그중에는 책 대신 캡슐 침대를 놓은 곳도 있었다고 한다(위의 신문기사 인용). 그동안 국내에서는 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학교 본부와 장서 폐기를 반대하는 대학 구성원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났고, 그중에는 계획이 유보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였지만 큰 소란 없이 장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한 곳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소속된 대학의 경우 처음 계획이 공지된 이후 교원들 사이에서 거센 반대 의견이 나왔고, 이후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사태의 건설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중이다.

장서 폐기를 반대했던 이들이 책을 구할 방편으로 처음 내세운 것은 법과 제도였다. 이 경우에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2항(2022년 3월 8일 시행)이 중요한 반대 근거였다.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표 2”에서 ‘전문대학’은 ‘학생 1명당 30권 이상’ 그리고 ‘전문대 이외의 대학’은 ‘학생 1인당 70권’의 도서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이때의 도서자료는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필사 자료, 전자책’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법은 도서관 자체가 아닌 ‘진흥’을 위한 법이기에 지키지 않아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이다. 교육부에 문의해도 “이 법은 말 그대로 ‘도서관법’이 아니라 ‘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이다.”라고 응답할 뿐, 대학에 장서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내 상위권 15개 대학의 1인당 도서관 장서 보유량을 보면, 장서 수 100권을 넘긴 대학은 5개 대학에 불과하고, 70권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대학도 존재한다(“[2023대입잣대] 1인 도서관 장서 서울대 1위.. 서강대 고대 숙대 외대 톱5”, <<교육전문신문>>베리타스알파) 393호, 2022년 10월 31일).

유명 대학들조차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대학은 어떠할지 충분히 짐작이 갈 것이다. 저 진흥법만 대학들이 제대로 지켜도 당장 대다수의 대학들은 상당한 장서를 추가로 충당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처럼 미래형 도서관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대량의 장서를 폐기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 다만, 이 법에도 고려할 점이 있으니, 저 해당 도서자료 중 3번째에 ‘전자책’이 들어 있어 대학 중에서는 종이책을 폐기한 이후 전자책으로 장서량을 충당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곳도 있다. 그러므로 전자책 장서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전자책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대학도서관마저 종이책을 외면

할 경우 학술도서에서 종이책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 자명한 만큼 이 문제는 종이책의 가치를 고려하여 신중히 살펴야 한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국립대학교 도서관 서고

‘폐기 도서’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다시 필자의 소속 대학으로 화제를 돌리면, 처음 도서관 측에서 폐기 도서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대출 실적’과 인터넷 혹은 상호대차를 통한 ‘대체 가능’ 자료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인터넷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폐기하는 것은 실물(종이)책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고전이나 학술서 등은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측정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인문학 저술들은 오래된 책들 중에도 여전히 현재적 의미를 지니는 책들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폐기를 반대했다. 무엇보다 도서 ‘이용’만이 아닌 후속 세대를 위해 책을 보관하는 ‘장서’ 또한 대학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오는 ‘상호대차’ 제도는 지금의 규정으로는 대출 권수나 기한, 방식 등에 제한이 많아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친다. 이로 인해 다량의 전문 자료들을 참고해야 하는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꺾고 결과물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지역 학술과 문화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술 연구의 중요한 바탕이라는 대학도서관의 기본 성격을 고려할 때 이는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후 본부에서는 한발 물러나 ‘폐기 대상 도서 목록’ 중에 각각의 단과대학별로 보존 희망 도서를 파악해 책을 재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작업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먼저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폐기 도서’ 기준을 정하는 일부부터가 쉽지 않았다. 단과대학·학과·개인별로 각기 전공 분

야에 따라 의견들이 갈리었다. 처음부터 책을 굳이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필자의 대학에서는 우선 단과대학별로 ‘도서분류표’를 기준으로 책을 분담하고 각각 맡은 분야에서 보관 서적을 선별하기로 하였다. 이때 인문대학에서 제시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고문헌의 시기 범위에 대해 기존의 ‘1910년’이 아닌 ‘1945년’까지로 확대하여 수집·보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견해를 수렴하여(옥영정 외, 「고문헌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7호, 국립중앙도서관, 2021년 11월), 1945년 이전의 도서는 분야를 불문하고 ‘출판 서지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하여 가급적 보존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 원칙은 1) 소장 복본 2) 인터넷 열람 가능한 연속간행물 3)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 및 보고서 4) 최신판 소장의 경우 과거판 폐기(단, 서지적 가치가 있을 경우 이전 판본 보존) 5) 오래된 수험서 및 어학·실용 기술 교재 등을 우선 폐기 대상으로 정하고, 그 이외의 자료는 내용에 따라 해당 전공자들이 취사선택하기로 하였다.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서 목록을 모두 검토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시간의 부족이었다. 수십만 권에 이르는 책들의 가치를 모두 일별하여 보존과 폐기를 논하는 작업은 제대로 하려면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끝날 일이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현재 대학가의 사정은 일단 도서관 공사나 장서 폐기가 결정되면 기한 내 예산 집행 등의 문제로 이후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천천히 장서를 살피고 그 보존과 폐기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더구나 책의 가치를 논하는 일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도 쉽지 않은 결정인 만큼 대학에서는 해당 전공의 교원들이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평소의 업무로도 바쁜 교원들을 이 일에 동원시키는 일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장서 폐기 사태에 앞장서고 큰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주로 인문대학 교원들인데, 최근 대학의 정책이 인문대학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전임교원 충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인문대학 교원 숫자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문헌을 연구 재료로 삼는 인문대학 교원이 사라지면서 책의 폐기를 막을 사람들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도서관 장서 폐기와 인문대학의 쇠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책이 사라지면, 책을 만드는 사람도, 책을 읽는 사람도 사라진다

이 문제를 더욱 확장해서 살피면, 전문학술서의 주요 구매층인 대학도서관에서 종이책을 폐기하고 전자책으로 대체하는 일은 학술서 출판계의 위기와 연구자들의 저서 출간의 기회를 제한하는 일로까지 연결된다. 인문학술서의 경우 저자의 연구만큼이나 그 글을 다듬는 전문 편집자의 교정 작업과 가독성 있게 만드는 북 디자인, 독서를 편안하게 만드는 종이와 인쇄 기술 선택에 이르기까지 책의 ‘물성’, 즉 어려운 지식을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전문 출판사의 기술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중요한 요소이다. 양질의 인문서 출판의 가장 큰 혜택은 그 책을 향유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로 향한다. 그러나 일정한 수요가 보장되지 못하면 편집과 제작 비용이 높은 전문학술서 출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신진연구자들의 출간 기회 또한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대학도서관의 장서 폐기는 단지 책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인문 학술교양 생태계의 붕괴를 가져오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그 생태계가 망가진 나라는 결코 문화강국이자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번에 필자의 대학에서는 인문대학을 중심으로 공과대학을 비롯한 다른 단과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보존 장서를 분류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두 차례에 걸친 선별 작업을 통해 적어도 각 전공 학술서와 인문 고전 및 출판사적으로 의미 있는 서적들은 남기는 방향으로 본부와 협의를 이끌어 가는 중이다. 이러한 진행은 결과적으로 학내 구성원의 반대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채 조용히 책들이 폐기되는 여타 대학도서관의 실태와 비교하면 어찌 면 운이 좋은 상황일지도 모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UC Berkeley) 동아시아 도서관

이 문제는 여전히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새로운 시설을 위한 도서관의 공간 확보와 그를 위한 장서 폐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별로 여러 대학이 함께 ‘공동 보존 서고’를 운영하는 방안도 이야기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범 사회적 차원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가 결정된 책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도 보다 섬세한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된다. 비록 불용 처리되어 대학에서 버려지는 도서지만 꼭 필요한 곳에서는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는 만큼, 책들을 그 가치와 쓰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잘 보내주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선행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도서관과는 다른 ‘대학도서관’에서 ‘종이책’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인식을 찾는 논의들이다.

오늘의 우리에게 어제의 책을 버릴 권리는 없다

필자가 대학생 시절이었던 20여 년 전에도 대학도서관에서는 개인 공부를 위한 열람실에만 사람들이 가득했고 필자가 주로 찾던 고전이나 인문학 책들이 뽁뽁이 꽃힌 서가는 늘 한산하고 고요했다. 이러한 풍경은 그동안 유학 중에 돌아다닌 일본과 미국 유수의 대학도서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문학

서적을 주로 보는 필자에게 도서관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아무도 없는 고독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필자는 책의 저자들이나 그 책을 소장했던 옛날 사람들과 책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었다. 필자에게 도서관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타임머신이였다.

누군가의 말처럼 단지 몇몇 이용자들만을 위해 그렇게 큰 서고와 많은 장서를 유지하는 것은 공간과 비용의 낭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 그 책들의 저자들이나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문학과 역사, 철학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도서관에 대해 필자와 같은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온 학문의 하나인 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토양 위에서 과거와 대화하고 현재를 고민하며 이를 기록하여 미래에 남기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니 적어도 '학문'을 추구하며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도서관'이라면 당장 '지금' 사람들이 책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불리 책을 없애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책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미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저 책의 '내용'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책이 만들어진 시대의 종지와 먹·잉크·붓·펜·활자·목판·인쇄기 그리고 그것들을 매만지는 손길을 간직하고 있는 책의 '형태'를 통해서도 발현된다. 우리는 책들의 몸과 마음을 최대한 온전한 형태로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중 과연 누구에게 책을 버릴 권리가 있는 것인가.



노경희(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이자 국어문화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을 공부하고 동아시아 비교문학과 문헌학, 출판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서적들의 형태와 물질적인 요소, 한자와 자국어 번역, 종교서 출판 등에 관심을 갖고 인쇄출판의 문화사회적 의미를 찾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17세기 전반기 한중 문학교류』(태학사, 2015)가 있고, 번역서로는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오오키 야스시(大木康著), 소명출판, 2007)와 『에도의 독서열』(스즈키 도시유키(鈴木俊幸), 소명출판, 2020) 등이 있다.

meehee1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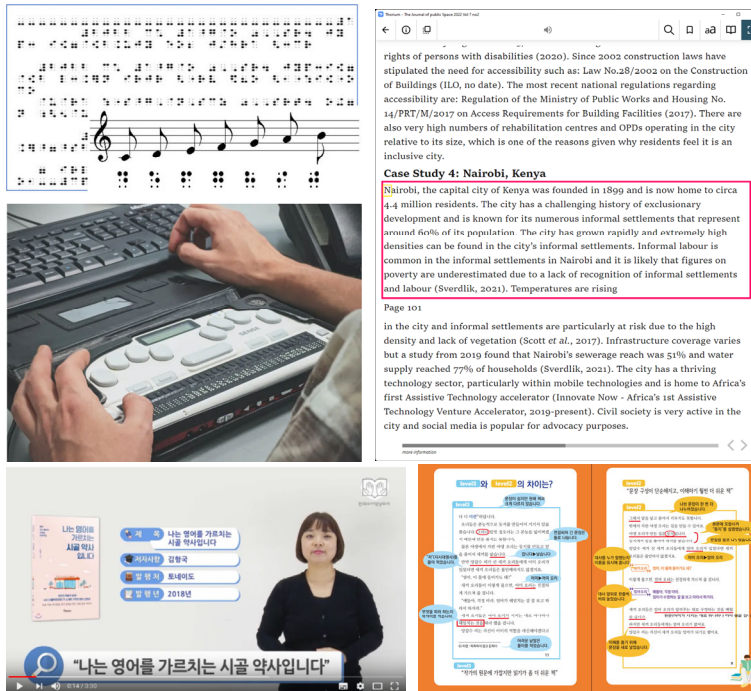
장애인의 독서 권리 보장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출판

장보성(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사무관)

2023. 11.

책을 읽고 싶어요! 장애인이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춰주세요!

책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위한 영양분이 되어 준다. 하지만 책을 읽는 즐거움을 도전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약 265만 명이며,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냉혹한 차별의 현실을 마주한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장애인은 본인의 장애에 따라 필요로 하는 대체자료의 유형이 다르다. 시각장애인은 점자, 음성, 촉각 지원이 필요하고, 청각장애인은 문자를 수어로 변환한 수어영상도서가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은 본문의 내용을 읽기 쉬운 글로 변환한 '읽기쉬운책'이 필요하다.



대체자료 유형(왼쪽 위부터 점자파일 및 점자정보단말기, 디지털음성도서(DAISY), 수어영상도서, 읽기쉬운책)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9조(접근성(Accessibility))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 및 통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독서 권리를 보장하고 도서관과 출판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법 제7조),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전자출판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하지만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하려면 다양한 문턱을 넘어야 하고, 이에 장애인의 독서 권리 보장을 위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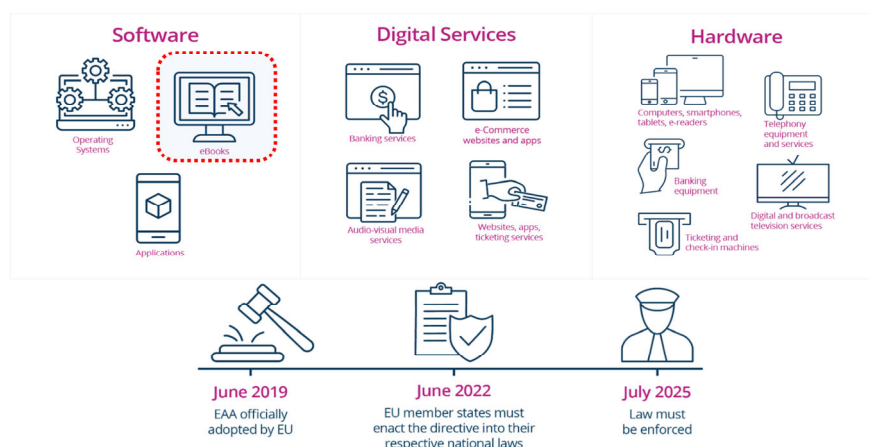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접근(Accessible)과 포용(Inclusive)의 차이

‘접근성’과 ‘포용성’은 서로 연결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명확히 구분한다면 의미에 차이가 있다. 접근성(Accessibility)은 “접근, 입력, 사용, 보기 등이 얼마나 쉬운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입력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의미한다(Oxford Dictionary, 2022)¹⁾. 반면, 포용성(포용적 디자인)은 특별한 디자인이나 개조 없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이다(British Standards Institute, 2005)²⁾. 포용적 디자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접근성은 포용적 디자인의 주요 결과 중 하나이다. 즉, 포용성은 수정 없이 처음부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을 때 ‘본래 접근 가능(born accessible)’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EU 국가는 「유럽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에 따라 포용적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접근 가능한 디지털 출판(accessible digital publications)’을 촉진하고, 출판물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때 ‘접근 가능한 디지털 출판’ 또는 ‘포용적 출판(Inclusive Publishing)’은 출판된 전자책을 수정 또는 변환하지 않고 출판 단계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획 및 설계된 출판물을 의미한다.

The European Accessibility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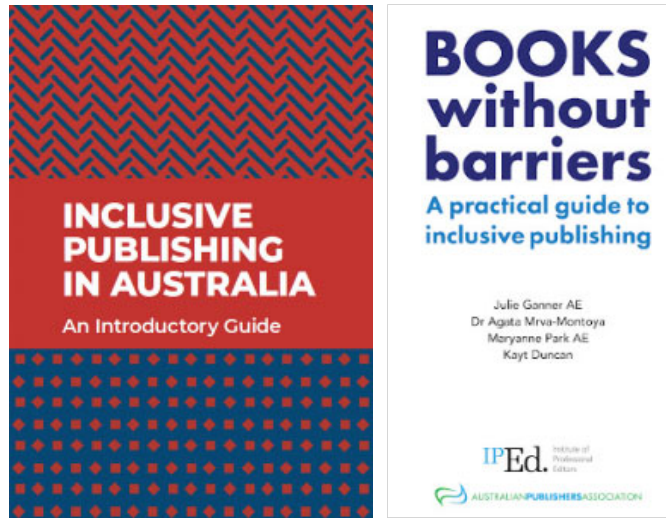


「유럽접근성법」의 대상 및 법률 시행 시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판이 모두를 위한 좋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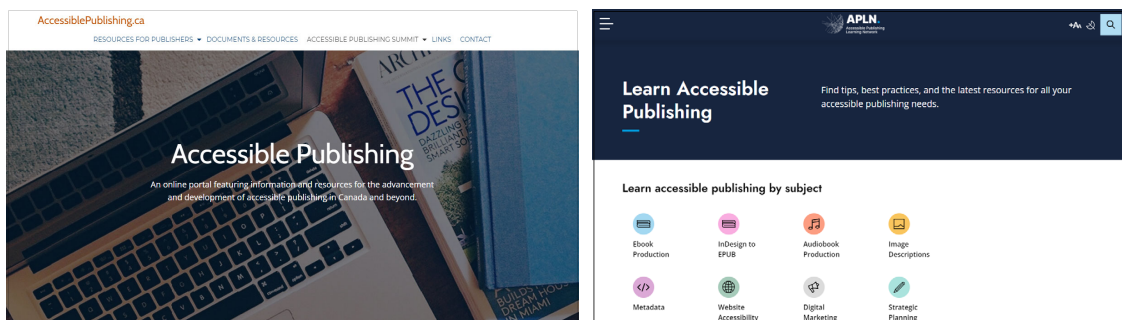
포용적 출판을 위해서 출판사는 기존 출판 형식과 워크플로(workflow)에 접근성을 제고시키거나, 기획 단계부터 포용적으로 설계된 콘텐츠를 만드는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책이 디자인된다면 출판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이점이 있다. 구조화되고 접근 가능한 콘텐츠는 도서관 및 장애인 교육기관에도 도움이 된다. 전자책을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점자 및 기타 촉각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매년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한편 ‘포용적 전자책(Born Accessible e-book)’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책 국제 표준인 EPUB(electronic publication) 포맷을 기반으로 ‘EPUB Accessibility 1.1(2023)’ 표준에 따라 전자책의 구조, 형식, 내용 등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전자책을 의미한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출판’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로는 호주와 캐나다가 있다. 호주의 ‘Australian Inclusive Publishing Initiative(호주 포용적 출판 이니셔티브)’는 지난 2019년에 간행물 〈Inclusive Publishing in Australia: An Introductory Guide〉를 발간하여 접근 가능한 출판에 대한 법적, 사회적 비즈니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Institute of Professional Editors Limited(호주와 뉴질랜드의 편집자 협회)’는 〈Books Without Barriers: A Practical Guide to Inclusive Publishing(2023)〉을 발간해 전체 도서 출판 과정에서 접근 가능한 전자책 발간을 위한 다양한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nclusive Publishing in Australia: An Introductory Guide〉,
 〈Books Without Barriers: A Practical Guide to Inclusive Publishing(2023)〉

한편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판과 전자책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참고 사이트(AccessiblePublishing.ca)를 운영하고 있다. 이 참고 사이트는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캐나다 전국 네트워크인 NNELS(National Network for Equitable Library Service)에서 개발했으며 BC(British Columbia) 도서관에서 호스팅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출판사에서 모든 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리소스 라이브러리이자 커뮤니티 허브 ‘APLN(Accessible Publishing Learning Network)’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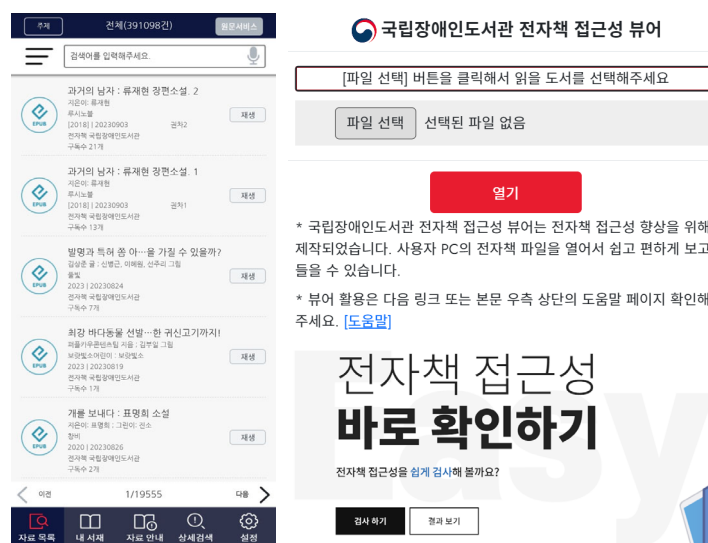


‘AccessiblePublishing.ca’와 ‘APLN(Accessible Publishing Learning Network)’ 홈페이지 메인 화면

“Born Digital = Born Accessible”을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은 화면 판독기 및 점자 디스플레이와 같은 보조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과 웹/앱 콘텐츠를 이용한다. 단, 전제조건이 있다. 웹과 콘텐츠가 접근성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22년, 출판사가 만든 전자책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수준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전자책 접근성 검증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EPUB 3.0 기반의 전자책 표준규격과 전자책의 접근성 준수사항을 자동으로 검증한다. 검증의 기준과 도구는 2022년 5월 제정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한국산업표준(KS X 6201-1)과 W3C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장애인의 전자책 이용 확대를 위해 ‘접근 가능한 전자책 뷰어’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뷰어는 구글 크롬(Google Chrome)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의 확장(extention) 기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뷰어에서 전자책 파일을 불러오면 본문의 내용은 물론, 메뉴 이동과 이미지, 주석, 수식 등을 음성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기존 음성도서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전자책 서비스 화면(좌), 전자책 접근성 검증 서비스(우)

한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3년 국제표준화에 맞추어 EPUB 3.0 기반의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접근성 요소가 들어간 EPUB 3.0 전자책의 제작 난이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였다. 또한 EPUB 3.0을 제작하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제작 교육 및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시상상에 장애인 접근성 부분을 신설하여 전자출판 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자출판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판사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책을 만들고 출판을 한다. 그리고 책을 기획할 때 일부의 독자가 아닌 모든 독자에게 매력적이고 유용한 책이 되기를 희망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독자가 자신들의 책을 찾고 읽기를 원할 것이다. 출판사가 포용적 전자출판물을 출판하고 판매한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장애인이 독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판물에 대한 콘텐츠의 접근성, 콘텐츠 뷰어의 접근성,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웹, 앱)의 접근성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 포용적 디지털 출판은 콘텐츠의 접근성 단계이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 교육 자료, 문학 및 여가 독서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사용자가 특정 환경이나

신체적 장애에 상관없이 포용적 디지털 출판을 통해 동등하게 접근하고 독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 1) Oxford Dictionary, 2022.(<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dictionary>)
 - 2) British Standard, 2005, 7000-6: 2005 Design management systems-Managing inclusive design-Guide. London: Author.



장보성(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사무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에서 일하고 있다.

club301@korea.kr

[2023 제3회 열린 포럼] 독서는 문화국가의 경쟁력이다

〈출판N〉 편집부

2023.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6일 서울 마포구 소재의 창비 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독서는 문화국가의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2023 제3회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책이 있는 환경이 주는 영향을 탐색하고,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는 지식큐레이터 전병근이 맡았으며,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기조강연에는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거대위기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독서문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콜마 송재하 과장은 ‘책 읽는 문화, 독서력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의정부시 도서관과 박영애 과장은 ‘도서관, 트렌드를 넘어 다시 본질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전병근 지식큐레이터

기조강연. 거대위기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독서문화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기조강연을 맡은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기조강연을 맡은 김누리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거대위기에 처한 시대’라는 것에 모두들 공감할 것이라는 말로 포문을 열고, “현재 살고 있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됐다.”라고 말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인 ‘거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력이 아니라 성찰능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성찰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찰능력은 당연히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독서능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에게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거대위기와 독서의 중요성을 연결시켜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니코 페이크(Niko Paech)가 쓴 독일의 베스트셀러 『풍요로부터의 해방(Befreiung vom Überfluß)』(2012)을 예로 들며 인류가 자본주의 이래로 쌓아놓은 풍요로부터 작별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류가 풍요로부터 해방될 능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없으면 몰락할 거라며, 빈곤으로부터의 해방보다 풍요로부터의 해방이 더 어렵다고도 말했다.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은 육체적인 노고를 필요로 하지만 풍요로부터의 해방은 정신적 성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서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으며, 독서를 통해 성찰하고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독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한 인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평생 동안 곁에서 경험한 일종의 목격자였다고 고백한 김누리 교수는, 『나누어진 하늘(Der geteilte Himmel)』(1963)의 작가이자 노벨상을 받은 독일의 크리스타 볼프(Christa Wolf)가 “내가 읽은 것이 나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그가 읽은 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독서가 중요함에도 한국인들은 책을 너무 읽지 않아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독서하지 않는 ‘실제 문맹률’이 높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은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독서하지 않는다고 하며, 일상에서 이동하거나 휴가를 보낼 때조차도 독서가 몸에 밴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기도 했다. 다독하는 독일인, 이것이 독일사회를 성숙한 민주 사회로 만든 토대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에 반해 너무나 불행한 한국사회의 문제를 여기서 찾았다. 또 불평등이 심각하고 개인, 사회, 빈부, 세대, 남녀, 이념, 정치 등에서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는 심연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심연이 없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우물이 없다는 의미로, 내면에 우물이 있어야 정체성이 자란다고 독서를 통해 심연의 결여를 회복해야 한국사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생태적, 국제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파국이라는 네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의 시대를 넘어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짚은 김누리 교수는 생태국가, 평화체제, 복지국가, 교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성찰능력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찰능력을 복원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대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독서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김누리 교수는 기초강연을 맺었다.

발제 1. 책 읽는 문화, 독서력이 경쟁력이다

송재하 한국콜마 인사팀 과장



첫 발제를 맡은 한국콜마의 송재하 과장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재하 과장은 소속 기업이 지난해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한 덕분에 이번 포럼에 초청받았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독서경영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직장 내 독서문화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 내 독서경영 사례에 대해 발표한 송재하 과장은 한국콜마가 전 세계 화장품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 독서를 독려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독서를 통해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세워 ‘KBS(Kolmar Book School)’라는 학습적 측면과 ‘KBL(Kolmar

Book Leader)’이라는 문화적 측면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이것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콜마는 기업의 핵심가치에 독서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독서학점제, 독서감상문 시상, 독서 리더 그룹과 독서 토론, 임원/리더 필독서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에 독서문화가 튼튼히 뿌리 내려졌다. 2021년부터는 독서경영 생태계도 구축해 전자도서관 도입, 도서 연계 온라인 학습 강화, 임원 독서감상문 필수 지정, KBL 인센티브 확대, 독서문화 홍보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송재하 과장은 독서경영 발전과 함께 회사도 고공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에 북카페를 배치해 사내에 6천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고, 모든 직원들이 매년 6권의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제출해야 할 정도로 독서문화를 인사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모임과 독서기증 문화도 정착시켜 경조사에 책을 기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독서 독려 이벤트를 운영하는가 하면 독서감상문을 통해 연간 총 12명을 시상하는 한국콜마는 독서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경영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한국콜마가 사내를 넘어 지역사회에까지 도서 기부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향후에도 한국콜마는 독서경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구성원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독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송재하 과장은 “책과 독서는 사람의 삶 그리고 조직을 크게 변화시킬 힘이 있고, 이것이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발제 2. 도서관, 트렌드를 넘어 다시 본질로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과 과장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의정부시 도서관과 박영애 과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영애 과장은 다년간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지난해 해외 도서관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고민과 화두인 ‘트렌드를 넘어 다시 본질로’를 주제로 정했다. 박영애 과장은 본격적인 발

표에 앞서 박웅현 작가의 『여덟 단어』(인티N, 2023)라는 책과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그림을 예로 들면서 내면과 본질이 같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어 “20년간 매년 해외도서관에 다녀오는데 지난해 네덜란드 도서관과 올해 초 일본 도서관을 다녀오면서 도서관 공간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것을 도서관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주제에 대해 다시 짚었다.

사전질문을 받고 관련된 내용을 발표에서 다루고자 했다는 박영애 과장은, 질문들의 주요 키워드가 ‘도서관의 역할’ 그리고 ‘도서관의 본질’과 연결고리를 가진 것이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의미, 4차 산업, 책 없는 도서관의 등장, 책 읽는 사회, 독서의 방향성, 본질을 잃지 않는 도서관의 역할 등이 있었다. 도서관의 본질과 연결된 것은 본질을 잃지 않는 도서관, 본질로 돌아가는 길, 본질과 트렌드가 공존하는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으며 발표를 통해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도서관의 트렌드에는 AI, 로봇 그리고 가장 큰 이슈로 챗GPT(ChatGPT) 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도서관에 다양한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정보화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서관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언급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자료실이 만들어지면서 도서관은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시작했고,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문화교실도 만들어졌다. 2010년부터는 도서관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부여받으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으며, 주민들에게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까지 갖추며 역할 변화와 함께 도서관에 다양한 공간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른 2016년 이후의 국내 도서관 트렌드와 관련해서는 부산대학교 이수상 교수의 말과 서혜란 전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이수산 교수는 “4차산업혁명으로 많은 도서관 업무가 소멸 또는 변화하고 정보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도서관 존립까지 위협받을 것이다. 정보화, 디지털화에 대한 무난한 대응 경험과 자체 빅데이터로 도서관의 특화된 서비스 영역 구축과 감성적인 대인 서비스 증대 등 시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도서관은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서혜란 전 관장은 “이용자의 기호에 맞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영애 과장은 이 두 발언의 공통점을 “도서관이 새로운 역할로 탈바꿈해야 하며, 새로운 정보생산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응하는 롤모델로는, 첨단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실감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실감서재’와 경남 창원시 창원도서관이 도입한 장서 제공과 안내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하는 ‘로봇 사서’를 소개했다. 더불어 가상공간에서 시가 알고리즘을 반영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또 하나의 트렌드로 개방형 공간을 꼽았다. 최근 5년 이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도서관이 개관하는데 모두 개방형 공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본질은 무엇일까? 박영애 과장은 도서관에 도서가 없다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서관에 책이 없다면 여타의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로 외국의 몇몇 도서관을 소개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틸뷔르흐 시에 있는 로컬도서관은 기관차 정비소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으로 도서관이 서점의 형태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도서관은 입구에 도서 분실 방지 시설이 있고, 책을 분류해 서가에 꽂아 두는 방식을 취하는 것에 비해 이곳은 서점과 같은 진열 방식으로 책을 배치한다. 덕분에 책이 훨씬 돋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비슷한 예로 도서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진열 방식을 택한 네덜란드 알메르 시의 도서관도 언급했다. 또 다른 예로는 일본 이시카와 현에 있는 현립도서관을 소개했다. 도서관이 소멸하는 도시를 살렸다고 평가받는 이 도서관 역시 책이 잘 돋보이게 진열해, 책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이슈가 됐다고 했다.

박영애 과장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도서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정부시는 음악도서관과 미술도서관을 특화해 운영하고 있다. 그중 2019년 오픈한 미술도서관은 책이 전면에 보이도록 배치하는 등 책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전체적인 국립도서관 방문객 수는 최근 엔데믹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방문객 수는 줄었지만 도서의 대출이용률은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영애 과장은 “도서관 방문은 줄어들지만 도서 이용은 상대적으로 줄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보아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방문객 수는 늘어나 지난해에는 120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 책의 이용률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서관의 역할과 본질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애 과장은 세계 최초의 공공도서관이자 무료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보스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스턴 공공도서관은 과거 개관 당시의 도서관 건물과 새로 증설한 도서관 건물 두 개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두 도서관 모두 도서관의 역할을 잘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공간은 변화했지만 무료 도서 대출 서비스를 도입한 보스턴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도서관의 트렌드와 본질에 대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 발표한 박영애 과장은 “앞으로 공공도서관은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과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가치와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시민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발표를 마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참여자 질의응답

Q. 독서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송재하 독서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 힘이 되는 독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발표에서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고, 독서감상문을 쓰고, 토론을 하며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는 환경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체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2006년부터 시작해 벌써 2023년, 거의 20년 가까이 장시간 진행해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 환경에서 우리가 책을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포함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아무래도 눈에 더 들어오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Q. 한국에서는 초등학교까지는 독서를 많이 장려하는데 중학교부터는 독서와 멀어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독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누리 독일의 구체적인 독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독일의 교육 환경을 말씀드리며 독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지식이 아닌 생각과 사유를 묻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 교육'이라고도 하는데요, 교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비판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유로운 사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억압되었던 비극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터부시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에 독서와도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터부를 극복할 내적·정신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독서는 사적인 영역이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공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도 사적 사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을까요? 공적 활동으로써 사적인 독서를 자극했던 해외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송재하 처음에 한국콜마도 독서 경영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강제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하니 좋아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 없으니 간단한 댓글을 달듯 독후감을 쓰다 보니까 그게 재밌는 겁니다. 또 그것을 직원들끼리 서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그 감상문에 또 댓글을 달고, 서로 공유하면서 직원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통해 본인들이 인사이트를 얻는 등의 장점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독서를 보여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구나, 독서가 조직을 위한 성장보다 개인의 성장도 시켜주고 그 개인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조직의 성장으로도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박영애 저는 해외 도서관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독서 프로그램을 연구해보지는 않았습지만, 해외 도서관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시민들이 책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고

록 책을 진열해놓은 것 자체가 시민들의 흥미를 끌어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도서관의 외피적인 부분이 아닌 독서문화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즉 책이라는 본질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서의 역할도 시민들이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책을 어떻게 더 돋보이게 할 건지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3회 열린 포럼 영상 다시 보기
- >>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3회 열린 포럼 자료집 바로 가기

〈출판N〉 편집부

대구의 11년 차 독립출판서점, 더폴락 이야기

김인혜(독립출판물 서점 더폴락 운영자)

2023. 11.



독립출판서점 더폴락의 외부(좌)와 내부(우) 모습

유니크한 독립출판물을 파는 동네책방, 더폴락

“서점이 얼마나 됐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처음 더폴락의 문을 함께 열었던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학교를 보내고, 둘째 아이도 학교에 보낸 정도의 시간. 오늘은 함께 서점을 열었던 친구가 더폴락이 기획 운영한 북마켓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와 책을 사가기도 했다. 11년 차,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책방의 시간은 그리 달라진 것이 없다. 새로 나온 독립출판물과 재입고해야 할 책을 추려 입고 메일을 보내면, 이어서 속속 도서들이 도착하고, 포장 안 된 것들은 포장을 하고, 가격이 안 붙은 책은 가격을 붙여서 신간이 있는 둥근 테이블에 올린다. 입고된 책의 소개 글을 SNS에 올리고, 새로 들어온 책이 주인을 찾아가길 기다린다.

여전한 시간이지만 서점은 세 번의 이사를 해 네 번째 공간에 자리 잡았고, 새롭게 출간한 책도 많지는 않지만 한 종씩 쌓였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독립출판축제 “아마도 생산적 활동”도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한다. 이번에 있었던 아쉬운 점이나 실수를 다음에는 고쳐서 적용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바꾸고 필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하며 매해 보냈다. 100년 된 유서 깊은 서점이나 지역과 함께하며 40여 년 이상 운영해 온 서점들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하루하루 꼬박꼬박 서점을 열고 닫은 시간이 이

만큼 쌓였더니, 새삼 신기하기도 하다. 오늘은 우연히 갓 문을 연 서점을 방문하게 돼 책방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주인장의 또렷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에 문은 설렘과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나무 책장을 보다가, 일을 마치고 매일 저녁 다섯 명의 친구들이 모여 똥땡거리며 함께 꾸렸던 책방의 시작이 떠오르기도 했다.



독립출판축제 “아마도 생산적 활동”(2017년)

“대형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한 독립출판물을 동네책방, 더폴락에서 만나보세요.”

문구를 적은 포스터를 만들어 문 밖에 세워뒀더니, “독립출판물이 뭐예요?”라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처음 문을 연 2012년은 매일이 독립출판물이 무엇인지 대답하는 날이었고, 또 대답을 준비하며 독립출판의 정의를 찾아보기도 하고, 스스로 독립출판을 규정해나가며 자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다. 이는 독립출판물을 주로 소개하는 서점의 숙명으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받지만 그때에 비하면 매우 드물어졌다. 지금은 그만큼 독립출판 신(scene)이 넓어졌고, 작가도 출판사도 독자도 많아졌다. 한국 독립출판은 2008년, 2009년을 시작으로 보는데,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가 스스로 만들어 유통하며 시작되어 현재는 그야말로 수많은 작품과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다. 독립출판물은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대안적 삶, 소수자의 이야기 등 주류에서 벗어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작품들이 매력을 발하고, 우리가 흔히 만나는 책이라는 형태와 형식을 벗어나 다채로운 책의 형태로 놀라움을 주기도 하며, 책 한 권이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이 되는 아름다운 아트북들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인디음악, 독립·예술영화를 좋아해 클럽헤비(1995년도에 오픈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구의 대표 라이브 클럽)에 공연을 보러 가고, 동성아트홀(당시 대구 예술영화전용상영관)에 신작을 함께 보러가기도 하며, 모이면 재밌는 걸 기획해보자며 실행할 수 있을지 모를 여러 기획 아이디어를 쏟아

내기도 했다. 그랬으니, 독립출판물을 좋아했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다. 서울에서 몇몇 독립출판물을 만나고 이 재밌는 걸 대구에는 소개하는 곳이 없으니 우리가 소개하면 좋겠다 싶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 공간에서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취미가 비슷한 대학 동기 다섯 명이 함께 재밌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더폴락이 됐다. 그렇게 대구 ‘첫’ 독립출판물 서점이라는 타이틀이 생겼다. 이후로 지금까지 변화를 거쳐 현재 더폴락은 처음 시작했던 다섯 명 중 둘 김인혜, 최성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더폴락 오픈 파티(좌), 현재 더폴락 운영자 최성·김인혜(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인디와 독립문화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게 많았던 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우리가 만난 독립출판의 매력을 소개하는 게 꽤 즐거웠던 것 같다. 독립출판물은 우리가 흔히 ‘책’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형태를 벗어나기도 하고, 책으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며, 인쇄 방식도 달라져 낯선 색감과 디자인 표지만으로도 우리가 흔히 보던 책과 달랐다. 독립출판을 모르는 것 같은 손님이 들어오면 속으로 ‘재밌는 걸 보여줘야지.’ 하고 책을 소개하고, 손님들은 ‘이런 것도 책이 될 수 있나요? 이런 내용으로도 책을 만들 수 있나요?’ 하며 신기해한다. 그런데 그것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 독립출판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여전히 신기해하며 재밌어한다.

더폴락의 일이자 많은 독립출판서점의 일이기도 한

그 이후로 첫 책을 발간하고, 첫 공연을 기획해 진행하고, 작지만 첫 축제를 만들고, 서점이 위치한 대명동을 둘러다보다 대명동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 단체로 찾아오는 학생들을 맞이해 강의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게 먼 미래의 계획보다는 한 해 한 해 주어진 일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연스럽게 조금씩 영역이 늘어나고 자리를 잡았다. 참고로 독립출판 영역에는 작가(예술가), 출판사 운영인, 서점 운영인 등 다양한 주체가 있다. 더폴락은 규모가 작지만 세 가지 모두를 하고 있어, 각기 다를 테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할 듯하다. 독립출판사이면서 동시에 서점을 운영하는 경우 일의 범위는 달라도 하는 일은 비슷하고, 서점을 운영하지 않는 독립출판사는 각기 다른 방

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일부만 겹칠 듯하다. 지금 더플락의 일을 정리하면 크게 아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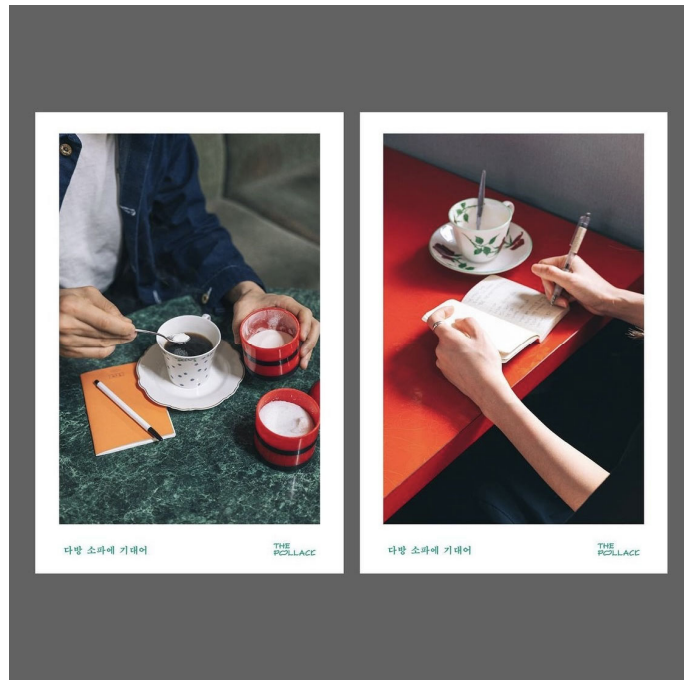
1. 서점의 일(책 입고, 음료 제조, 공간 운영, 커뮤니티 운영)
2. 출판/디자인/작가의 일(개인 작업, 창작, 전시, 출판, 제작, 유통, 마켓 참여, 외주 작업)
3. 문화기획 일(프로그램 운영/공간 기획 및 운영/관련 행사와 공연 기획 진행)
4. 강의 등(교육, 강의, 워크숍 진행)

서점은 주 6일 문을 여니, 그야말로 일상이다. 공간을 청소하고, 책을 주문하고, 도착한 책들을 진열하고,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업로드하고, 서점에 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료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 재료를 준비하고, 음료를 만드는 등의 일까지. 그 밖에도 요청이 있는 곳에 책을 선정해서 납품하기도 한다. 꾸준히 새로운 책들이 발간되고 들어오는 것을 살피고, 서점을 찾는 이들에게 소개하며 책을 유통하는 것이 일상이다. 또, 대부분의 서점에서는 다양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책 읽기 모임, 영화 감상 모임, 글쓰기 모임 등 꾸준히 커뮤니티를 진행하는 것도 서점의 일 중 하나이다.

독립서점들은 각 서점 운영자의 시선에 따라 선정한 책들을 소개하므로 모든 독립서점의 책이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서점을 찾는 이들에게 근처에 있는 다른 독립서점에도 가보라고 추천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천하고 나서 그 서점에 연락해주기도 한다. 대구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거나, 공동기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혹은 일 때문이 아닌 그저 만나 책 이야기나 서점의 이야기, 독립출판 신의 흐름이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더플락은 일 년에 1~2권 정도로 적게 책을 발간하고 있다. 특징이라면 주로 지역 콘텐츠를 주제로 출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더플락이 위치하고 있는 대구 북성로는 번성했던 1960년대 이후 개발이 비껴가 젊은 시절을 추억하는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밥집, 옷가게, 카바레, 술집, 다방 등이 모여 있다. 한편 그 안에 젊은 문화 기반 단체들이 속속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점이 북성로에 터를 잡은 지 9년 차다. 자연스럽게 이곳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어 북성로에 관련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좁은 골목이 매력적인 이 공간을 걸어 다니며 매력을 발견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조명해보았던 『반드시 느리게 걸을 것』, 화려한 패션 멋진 패션의 어르신들을 주목한 어르신 스트리트패션 사진집 『북성로 맵시』, 오래된 다방 6군데를 독립출판 작가 6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탐방하듯 다녀와 쓴 『다방 소파에 기대어』 등... 이 밖에도 대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짧은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대구 엽서북 『대구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대구를 살아가는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쓴 『늦은 밤이면 술렁이는 바람들이 긴 글이 되어 전해졌다』 등을 출간했다. 또한 대구의 인디신을 다루는 웹진 <빅나인고고클럽>과 함께 작업한 『인디덕질보고서』 등도 출간했다.



더플락의 출간 도서 『다방 소파에 기대어』

기획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디자인 후 인쇄하고, 북페어에 참여해 신간을 소개하며 독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서점들에 입고도 한다. 이 같은 과정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다양한 영역의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대구에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독립출판 작가들이 있다. 에세이스트 김인철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류은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기탁 작가, 이준식 사진작가, 만화가 근하 작가 등…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이런 책을 내보자고 의기투합하기도 한다. 물론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졌다가 빛을 보지 못한 책이 더 많다. 더플락 이름으로 출간하는 책 이외의 디자인, 책 제작 외주 작업도 하고 있다.

다음은 다양한 기획 일이다. 더플락은 매년 독립출판 북페어 “아마도 생산적 활동”을 열고 있어 타지의 제작자들을 대구로 불러 모으기도 한다. 그 밖에도 북토크, 공연, 전시, 독립영화 관련 기획 등 서점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책과 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 서점 문을 열기 전에 모여 나눴던 재미난 기획을 지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의뢰를 받아 진행하기도 하면서 좋은 기획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독립문화·책문화 관련 행사를 기획해 진행하기도 한다. 또 다른 공간을 운영하거나 서점으로 변신시키는 일도 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여러 청년단체가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무영당(대구의 근대 건축 유산이자 우리 민족 자본 최초의 백화점) 공간을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출판과 독립서점 관련 강의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기획일에 수창맨손에서 진행한 연말대책(좌), 더플락 기획 공연 “플락이다 - 김사월 편”(우)

10주년 기념 음반 “작은 책방을 위한 노래”, 해결하지 못한 숙제

서점이 지난해 10주년을 맞았고, 이를 기념해 지난 10년 동안 진행했던 토크콘서트 “플락이다”로 인연을 맺은 천용성, 김빛옥민, 신승은, 단편선 등 대구 내외의 인디뮤지션 8팀께 작은 책방을 위한 창작곡을 만들어주시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작업을 함께했던 키미, 타바코박스, 임진아 작가님 등 독립출판 시각예술가 8분께 음악을 보내드리고 각 곡에서 받은 영감으로 일러스트 포스터 그림을 부탁드렸다. 그렇게 8곡의 작은 서점을 위한 노래와 8점의 작은 서점을 위한 그림이 만들어졌다. 노래와 그림에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10주년 기념 음반 “작은 책방을 위한 노래”에서는 시와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곡부터 책에서 비롯한 다양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가사들을 들을 수 있다. ‘오늘도 무사히’는 은희경 작가의 소설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문학동네, 1988)에서 발췌한 가사로 “사실 나는”을 만들었다. ‘신승은’의 “우리 서점에는 오지 마세요”는 ‘뒷동산을 보고 젓가슴을 생각했나요’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곡으로 한국 문학을 위트 있게 꼬집는 곡이다. ‘단편선’의 “독립”은 강렬한 사운드와 가사로 음악이나 출판 등 다양한 ‘독립’을 선택한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는 곡이다. ‘천용성’의 “어디서 왔나”는 종이가 오는 곳으로부터 시작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노래로, ‘커다란 나무 지나. 곰과 호랑이가 사는 곳’이라는 가사 등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 종이가 오는 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빛옥민’의 “유연한 흔적”은 서점에서 책장을 넘기는 순간의 상념들을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책 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로 빗대며 신비한 사운드로 표현한 곡이다.

이처럼 “작은 책방을 위한 노래” 음반은 작은 책방에 보내는 응원이다. 우리 서점이 이제 10주년을 맞이했듯 많은 서점과 문화공간들의 10주년, 다음 20주년을 응원하고, 독립·인디 영역의 동료에게, 그리고 작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에게 보내는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작은 책방을 위한 노래” LP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일희일비하고, 운영에 대해 고민이 많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에는 독립출판축제 “아마도 생산적 활동”이 열렸다. 올해는 음반페어도 함께 진행했다. 이 행사도 내년이면 10주년이 되지만 매년 운영해도 매회 어렵다. 그래도 이렇게 진행했던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더 나아가면 더 단단해지겠지 생각한다. ‘첫’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씩 나아가리라 생각한다. 작은 서점에 응원을 보낸다.



김인혜(독립출판물 서점 더폴락 운영자)

궁금한 게 생기거나 외로울 때 자주 책을 펴고, 화나거나 슬플 때 일기를 썼다. 언젠가 책방을 운영하게 될 줄은 알았지만, 기대보다 빨리 시작해 서점을 운영한 지 11년이 되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산에 오르고 있다.

thepollack@naver.com

인스타그램: @thepollack5

에듀테크 시대, 교육 저작권 침해 공방

김명희(〈전자신문〉 기자)

2023. 11.

최근 몇몇 에듀테크 기업들이 기존 교재에 기반한 '쌍둥이 문제' 제공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교육 콘텐츠 저작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교육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에듀테크 기업과 교재 출판 기업 간 저작권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에듀테크의 개념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 갈등 양상에 대해 알아보며, 에듀테크 기업과 교재 출판 기업 간의 갈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 에듀테크 서비스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에듀테크 기업 창업이 크게 늘어났다.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총칭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종이 학습지 형태로 제공되던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가 태블릿PC를 기반으로 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로 제공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러한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서비스는 현재 에듀테크 시장을 이끄는 대표적 서비스 형태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실시간 화상 서비스를 통해 일대일 과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제집의 문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문제풀이 과정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내 학생의 영어나 수학 실력을 판단해 맞춤형 문제와 개인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두 에듀테크에 해당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학생에게 효율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에듀테크는 비단 학생 교육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교육 서비스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나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는 식으로 교사와 강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도 에듀테크에 해당한다.



에듀테크 기업의 시중 교재 기반 유사·쌍둥이 문제 제공

일부 에듀테크 기업들이 시중의 교재에 기반한 ‘쌍둥이 문제’ 혹은 ‘유사 문제’ 제공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교재 출판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학원용 교수 학습 운영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업 자료와 문제은행, 기출 예상 쌍둥이 족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의 표지와 원본 페이지 안내는 물론이고 해당 문제은행과 유사한 자사 문제은행 서비스를 제공해 학원이나 강사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했다. 이들은 해당 문제집을 참고해 유사 문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원본 콘텐츠를 그대로 제공하지는 않아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집 참고 안내가 시중의 교재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교재 출판업체 측에서는 시중 교재를 연계 개발했다는 점이 원본 없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많은 비용을 투자해 만든 타사의 교재 신뢰도를 자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학 문제의 경우 쌍둥이 문제들이 기존 문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숫자만 조금 고쳐서 내놓았을 뿐이라며, 애초에 기업이 가진 수학 문제의 고유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작년 말부터 다수의 교육 출판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여러 에듀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보냈고, 일부 기업은 서비스에서 교재의 표지를 내리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또 일부 업체와는 콘텐츠와 교재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갈등을 일단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 측에서는 원본 문제와 유사 문제를 표기하는 것 자체가 우연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아니라 대놓고 베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반면 시중 교재와의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 측에서는 원본 콘텐츠를 보여주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 출판업계에서는 당장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따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어나 영어 과목에서의 지문

콘텐츠 직접 도움이 아닌, 수학 과목에서의 유사 문제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 원천 콘텐츠 증명 등을 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실제 법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닝 시대 저작권 갈등, 법정 소송까지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로 인해 교육 콘텐츠를 촬영해 카페나 유튜브 등에 영상물로 올려 공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 서비스의 대중화 이후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계속됐다. 에듀테크 이전에는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학습을 이러닝(e-Learning)이라고 불렀다. 이러닝 시대를 대표하는 서비스는 인강이다.

대학 입시 대비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강업체들은 국정 및 검정 교과서와 시중 문제집 등의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때 사용료는 천차만별이다. 교재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유명 교재일수록 비싸다. 규모가 큰 대형 인강업체들은 교재 저작권 사용료로만 최대 수십억 원을 내기도 한다. 이러한 대형 인강업체들의 교재 활용 사례 및 사용료 지불 사례와 비교해 현재 에듀테크 기업과 교재 출판업체 간 갈등을 유사하게 바라보기도 한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저작권 갈등 양상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일부 에듀테크업체는 대형 인강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거액의 교재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직접적으로 교재를 수업 등에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인강업체와 아직 창업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의 상황은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인강업체들도 처음부터 교재 사용료를 순수히 지불한 것은 아니었다. 갈등 당시 오프라인 학원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 강의 영상에서 강사가 교재를 독창적으로 일부 활용하는 만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법정 싸움 끝에 인강에서 교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인강업체들도 때로는 디지털 기술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영상물로 제공되는 특성 상 인강 녹화물이 불법 복제돼 온라인으로 재공유되고, 이를 업체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 출판 저작권 제대로 대응하려면

2000년대 초반 '소리바다'로 대표되는 음원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음악이나 영화 관련 불법 다운로드 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사회 일반의 인식 개선과 합의, 디지털 기술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재업체와 저작권 침해 갈등을 겪는 에듀테크업체도 저작권 콘텐츠 보호 활동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러닝 시대를 거치면서 출판, 방송, 교육, 전시 등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또 대응이 비교적 잘 이뤄지는 편이다. 교재 출판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복제, 공유하거나 영상물에 노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인식이 높아졌다. 여전히 일부 개인이나 온라인 카페, 학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교재 PDF 파일을 공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출판사나 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통한 신고와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듀테크업체 중에서는 일대일 과외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교재 저작권 관련 사용 계약 체결로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 과외 학습 활동에서 기존 교재나 문제집, 참고서 등을 복사하거나 찢기기하여 배포,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분명하다. 이때 강사와 학생이 오프라인 교재를 구매, 보유하고 있더라도 디지털 복제, 전송을 했을 경우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된다. 유튜브나 온라인 카페에서 문제은행 서비스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저작권 침해 관련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초·중·고 내신 기출 문제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의 제작, 배포를 영리적으로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학원이나 과외 강사 등이 이러한 디지털 교재를 저작권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에듀테크 서비스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나 강사들이 합법적으로 교재를 사용하고 싶어도 일일이 출판사와 연락해 사용 계약을 맺기 어려운 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했다.

중요한 것은 교육 출판 기업이나 에듀테크는 서로 대립하는 업계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에듀테크는 전통적인 교재 출판 기업과 대척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재의 활용과 영향력 확산을 지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업계 공통의 대응 모색이나 정책 지원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AI 교육 시대,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논의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나라 교육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초·중·고 학교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 수업을 진행했다. 대학에서도 팬데믹 종식 전까지 약 2년간 비대면과 대면을 오가며 수업이 이뤄졌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오는 2025년에는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 도입된다.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시작으로 초등 3·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공통·일반 선택 과목에 우선 적용된다. 2026년은 초등 5·6학년, 중등 2학년, 2027년에는 중등 3학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발전된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학생 개개인 맞춤형 학습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교과서, 교재 교육 출판업체와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에 맞춰 관련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그동안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AI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공공 교육에 전면 적용되는 것이다. 디지털 교육 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만큼 교육 출판업계와 에듀테크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저작권 사용료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기반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갈등 사례가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특정하거나 별도의 사용료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취재 과정 중에 만났던 AI업체는 자사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시중 교재나 출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이를 막대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결국 포기했다고 전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 출판업계와 에듀테크 기업 사이에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작권에 관한 라이선싱(licensing)과 협약이다. 교육 출판업계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용 허락, 금지 차원이 아닌 교육 콘텐츠 가치가 플랫폼에서 보다 활발해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듀테크 기업도 기업 이익 추구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업계와 상생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속적 교육 콘텐츠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 구성원 중 하나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이때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권리를 보호하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책정과 활용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디지털 교육 플랫폼 내에서 저작권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교육 출판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명희<<전자신문>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산업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전자신문>에서 교육, 에듀테크, 대학,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 사례를 취재하고 있다. 2000년대 게임, 인터넷 산업을 시작으로 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이러닝, 교육 정보화 사업 등을 주로 취재했다.

noprint@etnews.com

[작지만 강한 출판사를 만나다]
수류산방 박상일 방장·심세중 대표
중심이 아닌 언저리에 자리한 낭만회사, 수류산방을 찾아서

백창민(북헌터 대표)

2023. 11.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1인 출판은 기획부터 편집, 마케팅, 영업 등 다방면의 업무를 개인이 해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 창업으로서는 비교적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1인 출판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많아지는 추세다. 1인 출판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터. <출판N>에서는 [작지만 강한 출판사를 만나다]를 통해 1인 출판사가 전하는 가감 없는 그들의 출판 도전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 본고에서 '1인 출판사'는 대표 포함 5인 미만의 출판사를 말함.

책으로 예술하는 출판사, 찬사와 혹평이 엇갈리는 출판사, 다른 출판사가 일을 의뢰하는 출판사, 언저리와 비주류를 자처하는 출판사, 안 팔리는 책을 더 안 팔리게 만드는 출판사, 책 만드는 재주는 뛰어 나지만 돈 버는 재능은 없는 출판사, 하지만 출판사라고 말하지 않는 출판사...

수류산방은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2023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수류산방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박상일 방장과 심세중 대표를 만났다.



수류산방 인터뷰에 함께 해주신 분들(왼쪽부터 박상일 방장, 조병준 작가, 심세중 대표)

수류산방의 탄생

박상일 박장님은 '박가서.장'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SK그룹에서 발행한 <지성과 패기>를 편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출판사 '박가서.장'과 편집회사 '박가공.장'을 운영했어요. 박가서.장이 SK그룹에서 발행한 대학생 잡지 <지성과 패기>를 외주 받아 발간하기도 했죠. 1997년 IMF 사태가 터지면서 출판사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그 무렵 사업을 접고, 디자인하우스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디자인하우스 입사 동기가 심세중 대표님이에요. 심세중 대표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사 석사과정에 있을 때 디자인하우스에 입사했어요.

수류산방은 디자인하우스 출신 분들이 뭉쳐 창업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합니다.

IMF 사태 이후 디자인하우스는 이영혜 대표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어요. 디자인하우스에서 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무렵 디자인하우스는 부서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다른 사업 부와는 교류가 없었죠. 그런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어요. DES 사업부장과 <DOVE> 편집장을 지낸 박상일, 월간 <디자인> 기자였던 심세중, 디자이너 김용한, 사진가 이승무와 이한구...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주 뭉쳤죠. 그러면서 서로 친해졌어요. 이 멤버가 2001년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 의재 허백련과 의재미술관』(디자인하우스, 심세중)을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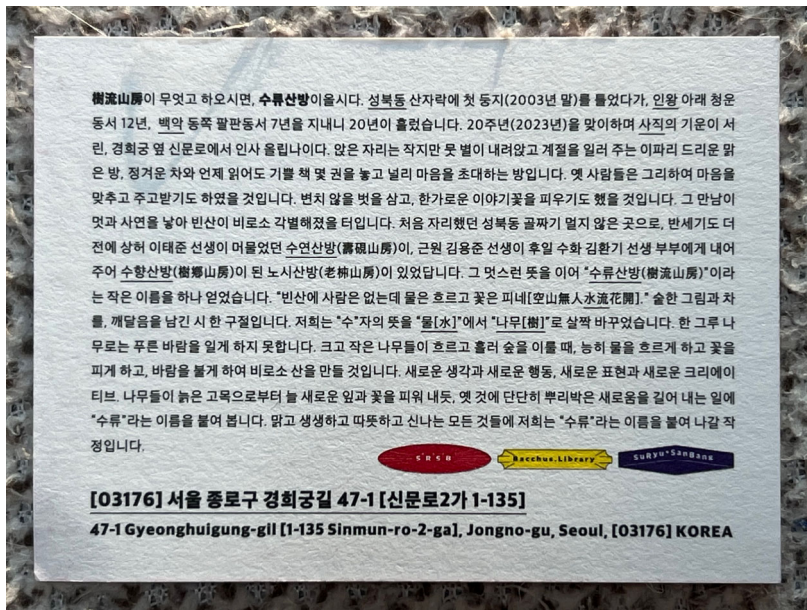
그렇게 친해진 사람들이 디자인하우스를 떠나서도 술 모임을 이어갔어요. 서울 성북동 성북아파트가 저희 '아지트'였어요. 모이면 주로 막걸리를 마셨어요. (웃음)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회사를 만들자고 '의기투합'하셨나요?

처음에는 회사를 차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편집장부터 편집자, 디자이너, 사진가까지 모여 있다 보니, 하나의 '팀'으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었어요. 일이 들어 오면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그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성북동에서 1년쯤 시간을 보내고, 2004년 말에 청운동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출판사 등록도 이 무렵(2004년 11월 5일)에 했습니다. 박가서.장 출판사를 하면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단행본 출판'은 안 할 생각이었어요. '다른 일'을 해야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류산방(樹流山房)'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2003년 겨울 성북아파트에서 자주 만나던 무렵이었어요. 자주 모이는 거처의 이름이나 짓자는 얘기가 나왔죠. 성북동에 작가 상허(尙虛) 이태준의 고택 '수연산방(壽硯山房)'과 화가 김환기, 수필가 김향안 부부가 머문 '수향산방(樹鄕山房)'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산방'으로 지어보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공산무인 수류화계(空山無人 水流花開, 텅 빈 산엔 사람 없어도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라는 문장에서 '수류(水流)'를 따서 '수류산방'이라고 작업실 이름을 지었어요. '물이 흐른다(水流)'라고 하지 않고, 물(水)을 나무(樹)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름이 '회사명(樹流山房)'이 됐어요.



수류산방 명함 뒷면: 명함 뒷면에 “樹流山房이 무엇고 하오시면 수류산방이올시다.”로 시작하는 소개 글이 있다.

인터넷서점에서는 ‘수류산방.중심’이라고 표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류산방에 붙어 있는 ‘중심’은 왜 붙었고, 어떤 의미인가요?

‘수류산방.중심’은 출판사 등록을 하면서 사용한 이름입니다. 초기에는 ‘수류산방.중심’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어요. 공식적인 회사명은 ‘수류산방’이에요.

‘수류산방.중심’에서 ‘중’자가 ‘가운데 중(中)’이 아니더라고요.

‘중심’에서 ‘중’은 ‘가운데 중(中)’이 아닙니다. 버금 중(仲)이에요. 부동산 중개업(仲介業) 할 때 이 중(仲) 자를 씁니다. 심세중 대표 이름의 중자이기도 합니다. (웃음)

‘버금 중(仲)’을 쓴 것은 ‘사람들 주위에 머물자.’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사람(人)과 사람(人) 사이(中)에서 뭔가 해내자.’는 수류산방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류산방.중심의 영문명을 수류산방은 forest camp로, 중심은 mind media로 쓰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중개한다.’라는 의미로 mind media로 표기했죠. 지금은 수류산방 영문명을 Suryusanbang이라고 표기합니다. ‘버금’은 첫째까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중심(中心)’이 아닌 ‘언저리’에 자리하자는 수류산방의 철학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수류산방이 말하는 수류산방’이 궁금합니다. 수류산방을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해결사’ 구실을 하지만, 우리를 뭐라고 규정할지 저희도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수류산방은 어떤 회사 일까요? (웃음) 초창기에는 그때그때 문제 해결을 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매번 다른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풀어나가는 그룹이라는 의미였어요.

출판뿐 아니라 음반과 전시, 공연, 공간 기획, 기업 BI(Brand Identity) 작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류산방은 ‘출판사’인가요? ‘기획사’인가요? ‘디자인 회사’인가요? 수류산방의 ‘정체성’이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광고 대행사가 하는 업무를 소규모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군가 문제를 갖고 있으면 해결해주는 일종의 ‘흥신소’ 구실을 해왔어요. 출판사 등록을 했으니까 ‘출판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의뢰는 결국 ‘콘텐츠’거든요. 저희는 ‘콘텐츠’를 책뿐 아니라 음반과 공연, 전시와 기업 BI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일감을 먼저 찾아 나서지는 않고,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겠다고 나서기보다 다른 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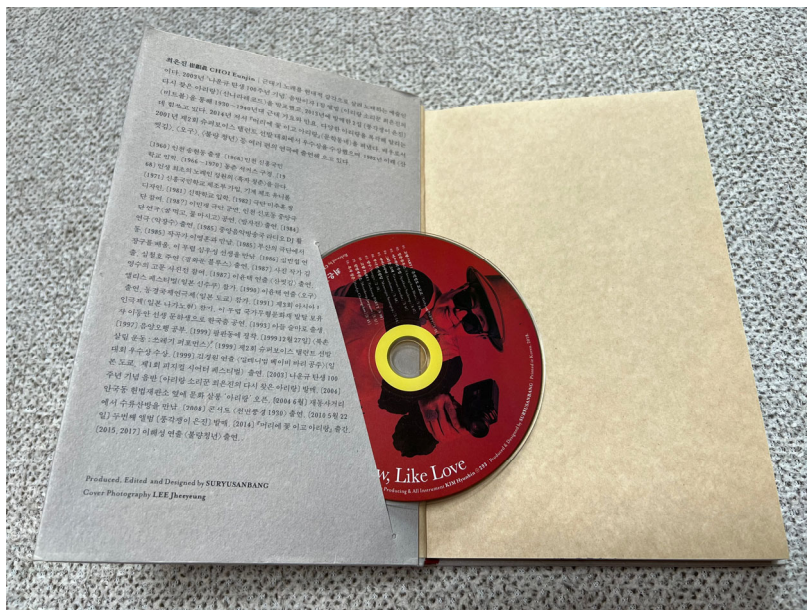
‘들어오는’ 일뿐 아니라 일을 ‘만들어’ 하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건축가 조성룡, 예술인이자 소리꾼 최은진 선생님 같은 분의 ‘속사정’을 알고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일

부러 '일을 만들기'도 했어요. 조성룡 선생님이 '소록도 마을 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심포지엄과 전시를 추진했죠. 전시는 보안1942 최성우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건축의 소멸 - 보안여관에서 소록도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보안여관에서 개최했어요.

때로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일을 '만들기'도 해요.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저희 돈을 들여 일을 하니깐,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겠구나,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면 일을 '만들어' 합니다.

최은진 선생님은 1920~1930년대 '만요(漫謔, 재미있는 가요)'를 알리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2010년 최은진 선생님이 <풍각쟁이 은진>을 낼 때 음반 디자인과 소책자 작업을 함께 했어요. 음반 재킷이 책 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최은진 선생님께 다음 작업은 '실험적인 음반'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죠. 1930년대에서 1960년대 노래까지 하나하나 번안하고, 새로 작곡한 2곡도 함께 음반에 수록했어요. 그 결과물이 2018년 나온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88쪽 분량의 책에 음반을 담아 발매했어요. 출시와 함께 음반에 담긴 노래를 알리는 공연 '은진철도 고고고'를 2~3번 개최하기도 했어요. 그 때 알았죠. '음반'은 '책'보다 수익이 더 안 난다는 사실을. (웃음)



최은진의 <헌법재판소>: 여느 음반처럼 CD에 소책자가 있는 형식이 아니다. 288쪽 분량의 책에 CD가 담겨 있다.

수류산방은 '대중출판'이 아니라 '장인출판' 또는 '실험출판'의 영역에 자리한 출판사로 봐야 할까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수류산방은 어느 영역에 있을까요? (웃음) 대중적인 트렌드를 좇지 않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우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평을 할 수도 있겠네요. 주변 지인으로부터 가끔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수류산방 만든 이가 돈이 많아?" 아마 '돈이 많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출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반문일 거예요.

박상일 방장님과 심세중 대표님의 '역할 분담'도 궁금합니다.

'공동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디자인하우스 시절부터 25년 넘게 함께 일하다 보니, 기획이나 편집, 디자인, 사진 작업을 넘나들며 '함께' 일하고 있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글을 만지고 편집하는 일은 대부분 심세중 대표가 담당하고, 디자인은 주로 박상일 방장이 맡아왔죠. 처음에는 디자인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대외적인 업무도 함께 해요. 심세중 대표가 외부 조율을 맡는 경우가 많죠. 창업 동지인 김용한 이사님이 올여름 다시 합류한 후로는,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업무를 함께 해서 한결 든든해요.

수류산방이 일하는 법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면, 수류산방은 '어떻게' 작업을 하나요?

문제를 풀어갈 때 '잡지(雜誌)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잡지는 피쳐(feature) 기사부터 사진 화보까지 여러 형식을 담고 있고, 내용으로 보면 패션부터 정치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공존'하잖아요. 콘텐츠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잡지 방식'을 선호합니다. 수류산방 구성원이 대부분 잡지를 거쳐서 그런지, 잡지 방식으로 일하는 걸 즐겨 해요.

수류산방은 '기획'과 '디자인'을 함께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기획에 대해 '컨셉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이 부딪히지 않았나요?

그럴 때는 일을 못하죠. 함께 일을 안 합니다. (웃음) 저자가 '컨셉트'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컨셉트와 그림을 만드는 건 '수류산방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류산방은 컨셉트를 정하고, 작업을 병행합니다. '기획'과 '디자인'을 함께 진행하죠. 작업 중간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작업물'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게 완성된 작업물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클라이언트와 생각이 좁혀지지 않을 때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자주 있나요?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날 때 감당할 수 없을 듯하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라.'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요즘에는 처음부터 단단히 설명해서 돌려보냅니다. (웃음) 그렇게 시작해도 수류산방 '작업물'을 받아보고 당황하는 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만큼 진행한 단계에서 그만두는 사례는 이제 많지 않아요.

작업물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싸우기도 하나요?

때로는 싸울 때도 있죠. 생각이 다를 땐 싸워서 ‘결판’을 내야죠. 클라이언트 대부분은 수류산방 작업물을 처음 받아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익숙하지 않고, 상상하던 형태도 아니니까요. 심하면 ‘폭언’이 오가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 박정자 선생님도 처음에는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박정자 선생님은 30주년과 40주년 때도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모두 에세이류의 말랑말랑한 책이었죠. 50주년 책은 다르게 가자고 ‘기획’했어요. 50주년 책까지 비슷한 에세이로 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한 사람의 50년은 ‘아카이브’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박정자’라는 배우의 50년을 통해 한국 연극 역사를 아카이빙하자는 구상으로 작업물을 만들었어요. 에세이를 생각했던 박정자 선생님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셨죠.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박정자와 한국 연극 오십년 1962~2012』(2012)입니다.



『박정자와 한국 연극 오십년 1962~2012』: 한 배우의 연기 인생과 한국 연극사 반세기를 교차해서 책으로 엮었다.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온 적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클라이언트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미팅 때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환자가 병원에 와서 처방을 내리지 않고 처방을 받듯, 저희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솔루션’은 저희가 제시합니다. 클라이언트 생각대로 책을 낼 거라면 다른 출판사 통해 ‘자비 출판’을 하시면 되지, 굳이 수류산방에서 책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고 맡기는' 분도 있나요?

건축가 조성룡 선생님과 화가 김택상 두 분은 작업 과정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조성룡 선생님은 2001년 발간한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를 작업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믿고 지내다가 10년쯤 지나서 정기용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만나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의재미술관에 이어 충청남도 홍성의 이응노 생가기념관도 조성룡 선생님이 설계하셨거든요. 『이응노의 집, 이야기』(이응노, 2012)와 조성룡 선생의 첫 책 『건축과 풍화: 우리가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2018)을 발간할 때도 책이 나올 때까지 중간에 교정지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수류산방에 대해 조성룡 선생님의 '믿음'이 굳건하셨나 봐요.

믿음도 있으셨겠지만 '애들은 중간에 건드리지 않아야 잘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웃음) 다행히 조성룡 선생님은 완성된 책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김택상 선생님은 청운동 시절 알게 된 분이예요. 저희를 불쑥 찾아오셨죠. 서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책 작업을 하게 됐어요. 김택상 선생님은 정말 책이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믿고 맡기는 분'이었어요. 『김택상의 색, 채의 건축술』(2020)은 그렇게 탄생한 책이에요. 김택상 선생님 역시 결과물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수류산방의 실험으로 보자면 '결작'이 나왔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쉬워요. (웃음)

처음부터 저자와 수류산방의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나요?

조병준 선생님의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 이 땅이 아름다운 이유』(2005), 『퍼스널 지오그래픽』(2021), 김인환 선생님의 『과학과 문학: 한국 대학 복구론』(2018)처럼 원고에 거의 손을 안 대고 만든 책도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죠. 그렇다고 이 작업들에서 수류산방이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를 발휘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자에게도 자신의 책에 대한 그림이나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출판사라면 저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책으로 구현해낼 수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이 수류산방 출판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도전 과제예요. '저자에게 그림이 있다면, 출판은 그걸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알음알음 수류산방을 찾아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난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많았을 듯합니다. 수류산방이 진행한 프로젝트 중 가장 어려웠던 작업은 무엇이었나요?

늘 어려운 일의 연속이지만, 막상 가장 어려웠던 작업을 말하라고 하니깐 금방 떠오르지 않네요. 수류산방에서 일하면서 '나쁜 일을 곧 잇는' 버릇이 생겼어요. (웃음) 매일유업의 50년 역사를 아카이빙한 『매일 50』(2019)도 난도가 높은 프로젝트였어요. 무엇보다 작업량이 어마어마했어요. 방대한 기사와 논문, 인터뷰와 사진 자료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작업 기간도 32개월이나 걸렸어요. 1969년부터

2019년까지 매일유업 50년을 10년씩 끊어서 5권의 『아카이브북』으로 만들고, 요약본으로 『연대기』와 『생태학』 2권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국립극단 70+ 아카이빙』(2021)은 원래는 논문집 형태의 책을 의뢰받았어요. 그리고 국립극단 내부에 아카이브 자료가 다 있다고 하니, 그 자료들을 구성해서 70년 역사를 정리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류산방의 선물이라고… 그런데 막상 작업에 착수하고 보니, 아카이브 자료가 엉망이었어요. 국립극단이 지금까지 한 모든 공연과 팸플릿, 몇만 장의 사진까지… 모든 자료를 읽고 검토하면서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병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 연극 전문가가 쓴 책과 논문에도 오류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잘못된 레퍼런스를 반복해서 참고했기 때문이죠. 확인 가능한 오류는 최대한 바로잡았습니다.

이런 노력 속에 1,300쪽이 넘는 『국립극단 70+ 아카이빙』이 탄생했어요. 난도가 높은 작업을 할 때면 ‘제명에 못 살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하지만 작업을 마치고 나면, 성장을 했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죠.



『국립극단 70+ 아카이빙』: 1,304쪽 분량의 벽돌책을 연상시키는 위용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드네요. 작업 과정이 정말 힘들 듯합니다.

작업물을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정말 힘들 때는 따로 있어요. 예컨대 함께 작업해야 하는 담당자가 중간에 빠져서 여러 가지로 못 살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스태프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기도 하죠. 클라이언트가 출판사나 디자인 에이전시를 전문가나 동등한 업무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권위를 행사할 때 모멸감을 느끼죠. 그럴 때는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로 ‘파투’를 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작업이 쉬워져야 할 텐데, 어려운 프로젝트만 몰려오면 난감하겠네요.

역설적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난제’일수록 합의점이 잘 도출돼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공감대가 잘 만들어져요. 그런 ‘고민’을 직접 겪어 보지 않고 찾아온 분들이 저희 제안을 어려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저 ‘예쁜 책’ 만들고 싶어서 온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 예쁘게 잘 만든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어려워지죠.

‘비용’과 상관없이 최고의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지점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클라이언트가 의뢰하는 프로젝트나 단행본 출판물이나 ‘이만하면 되었다 싶은 답’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끝내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무한정 작업물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선에서는 타협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최고는 아니더라도 저희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합니다. 단행본 책값을 정할 때 회사 안에서 이견이 있을 때가 많아요. 책에 들인 공만큼 책값을 매기기 어렵거든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넘어서더라도 결과물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 작업합니다. 이 책이 탄생해야 하는 이유, 그 가치가 표현될 때까지 일을 밀어붙여요.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만든 『문신 文信: 우주를 향하여』(2022)도 그런 사례였어요. 이번에 예술가 문신 ‘탄신 100주년’을 맞아 출판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신 선생의 조각 작품을 전면 사진만 찍지 않고, 전후좌우 8면을 돌아가면서 촬영해서 수록했어요. 그래야 작품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일 수밖에 없어요.

공을 많이 들여 작업을 하시는데요. 기관이나 클라이언트가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나요?

기관이나 클라이언트는 감안해서 예산을 더 책정한다고 하지만, 수류산방이 들이는 품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작업 과정을 알고 있는 담당자들은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 다시 작업할 때는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요.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흔해요. 과제는 늘 어렵고, 예산은 부족하고, 기간은 언제나 빠듯하죠.

수류산방이 생각하는 출판

수류산방은 단행본을 낼 때 저자를 어떻게 ‘섭외’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류산방에서 책을 내는 필자 중에 티켓파워를 지닌 베스트셀러 작가는 거의 없어요. 조병준 선생님을 비롯해 모두 ‘훌륭한 저자’ 분들이지만, 이른바 ‘유명한 저자’는 없죠. 저희와 인연이 이어져서 책을 낸 저자가 대부분입니다. 곧잘 하는 말이지만, 잘 팔리는 저자라 해도 그 분의 가장 덜 팔린 책이 수류산방 책일 거예요.

저희가 내는 책 중 상당수는 팔릴 가능성이 많지 않은 원고일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 ‘콘텐츠 파워’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런 콘텐츠를 재료 삼아 수류산방은 일을 합니다. 콘텐츠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일반 출판사에서 하지 않는 형태와 디자인, 물성으로 책을 만들어요.

영화계에는 ‘좋은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도 흥행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쁜 시나리오에서 출발한 영화가 흥행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출판계에도 ‘좋은 원고로 만든 책이 안 팔릴 수는 있지만, 나쁜 원고로 만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원고가 부족할 때는 출판사도 어쩔 수 없지 않나요?

흥행이 될 만한 원고, 잘 팔리는 원고가 ‘좋은 원고’라고, 반대로 팔리지 않는 원고라서 ‘나쁜 원고’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쁜 배우, 월드 스타를 캐스팅했다고 ‘좋은 영화’가 탄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명 배우가 없어도 감독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저자와 출판사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출판은 ‘저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자 = 흥행’이라는 공식 속에 출판 방정식이 빈약해졌어요. 좋은 원고를 쉽게 얻는 방법의 하나가 번역서일 거예요. 그런데 문학적 필력이 부족하거나 저자의 유명세가 아쉬운 원고를 가지고도 출판사는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몫에 참여해 함께 집필할 수도 있고, 저자를 독려해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책을 깊이 이해하는 ‘안목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책을 만들어내는 게 수류산방의 도전 과제예요.

‘책’은 쓰는 걸까요? 만드는 걸까요? 저자가 원고를 쓰지만, 책은 수류산방이 만들어요. 이런 의미에서 수류산방에서 내는 출판물은 ‘저자만의 책’이 아니에요. ‘수류산방의 책’이기도 해요. 저자가 원고를 쓰지만, 출판사는 책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돈과 인적, 무형적 자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주체이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책’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자의 책을 출판사가 ‘대신’ 팔아 준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외주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와 자체적으로 책을 내는 ‘단행본 출판’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시나요?

단행본 출판물은 계속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많이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충점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클라이언트로부터 외주를 받아 작업한 결과물을 출판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완해서 ‘유료 판매’로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국립극단 70+ 아카이빙』과 『문신文信: 우주를 향하여』(2022)는 그렇게 출판한 책입니다. ‘비매품’을 ‘판매용’으로 돌리는 거죠. 수류산방도 기획과 투자를 해서 ‘파는 책’으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요. 순수하게 단행본을 내는 경우는 1년에 1권 낼 때도 있고, 더 낼 때도 있어요. 2023년에는 지금까지 이우성 산문집 『졸아서,』 한 권만 나왔어요. 수류산방 책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일반 출판사와 비교해서 제작비가 2~3배 정도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행본은 생각보다 많이 내지 못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와 ‘단행본 출판’의 매출 비중도 궁금합니다.

단행본 출판 사업은 수류산방 전체 매출에서 5%도 안 될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류산방은 ‘출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출판N> 인터뷰 제안을 주셨을 때 선뜻 답을 드리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매출이 크지 않다고 업무 비중이 적은 건 아니에요.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행본 출판 사업이 30% 정도 됩니다.



수류산방 현판: 수류산방은 성북동, 청운동, 팔판동 시대를 거쳐 신문로2가(경희궁길)에 새롭게 동지를 들었다.

작업을 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전부’ 찾아 읽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수류산방은 작업을 할 때 연구자가 밝히지 못한 오류까지 잡아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솔직히 ‘미치도록’ 힘들 때가 많아요. ‘책 만들기’를 넘어서 ‘책 쓰기’를 하거나 저자의 뒤통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작업 중에는 『국립극단 70+ 아카이빙』처럼 공동 저자가 많거나 『매일 50』처럼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책도 있거든요. 『예술사 구술 총서, 예술인·生』(2011~2012)처럼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필자가 많을 경우 아무도 ‘내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수류산방이 ‘우리 책’이라는 생각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책을 내면 언제 또 내겠느냐, 저자는 앞면만 볼 때 우리는 옆면과 뒷면을 다 본다.’라는 마음으로 오류를 잡아내려고 애써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책 만들기에 공을 들여도,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책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잖아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했다는 ‘뛰어난 목수는 가구의 보이는 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쓴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원고는 ‘저자 책임’이지만, 책이 나오면 출판사와 ‘공동 책임’이 되니까요. 저자가 쓴 원고를 비판적으로 의심하고 검증하는 관점으로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고를 읽는 ‘첫 독자’이자 ‘마지막 작업자’라는 책임감으로 작업에 임해요.

수류산방이 일하는 방식이 남다르다 보니, 선호하는 ‘인재상’이 따로 있을 듯합니다.

수류산방은 ‘편집’과 ‘디자인’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책을 만드는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때로는 저자가 편집자처럼 교정을 함께 하기도 해요. 저희는 책 만드는 과정을 나누지 않아요. 원시공동체처럼, 르네상스 이전 시대 장인들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작업을 함께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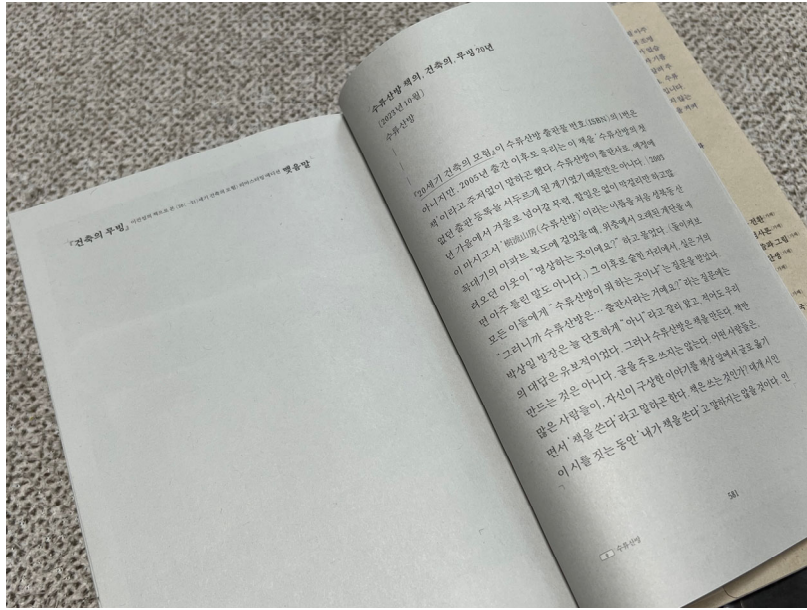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저희는 스태프를 ‘에디터’나 ‘디자이너’라고 하지 않고 ‘PD’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프로듀서’를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편집 또는 디자인만 하고 싶은 분은 함께하기 어려워요. 수류산방이 ‘공채’로 사람을 뽑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공채로 뽑은 적도 있지만,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수류산방을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분을 어렵사리 만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끔은 수류산방이 안데르센 동화 『완두콩 공주』에 나오는 공주의 감수성을 지향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작업을 할 때는 침대요 20장, 솜이불 20장을 깔고도 완두콩 한 알 때문에 잠 못 이뤘다는 공주처럼 예민해져야 해요. 종이와 판형, 디자인까지 ‘심미안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렇다고 수류산방이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수류산방 책만이 지니는 독특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류산방 책에 ‘편집 후기’라고 할까요, 저희가 쓴 글을 한 편 정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책이 어떤 과제였고, 그 시간 동안 수류산방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글을 통해 ‘방점’을 찍고 가려고 해요. 이번에 20주년 기념으로 출간한 『건축의 무빙: 책으로 본 20~21세기 건축의 모험』(이건섭, 2023)에도 「수류산방 책의, 건축의 무빙, 20년」이라는 글이 12쪽 분량으로 담겼어요.

작업을 할 때는 ‘아마추어의 관점’을 유지하려고 애써요. 한국 지식사회는 식민지 관점이나 대외종속 관점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전문가의 함정’이죠. 전문가가 자기 지식체계를 고집하면서 대중과 동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지식 분야마다 자기만의 성(城)이나 영역을 쌓는 경우가 흔하죠. 그러다 보면 현실에 대한 총체적 접근에서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오히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류산방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의 관점에서 출발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고, 다시 점검하는 프로세스로 일을 합니다.



20주년을 맞아 출간한 『건축의 무빙』: 수류산방이 직접 쓴 ‘맺음말’이 인상적이다.

글꼴로 ‘명조체’만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때는 ‘명조체’만 고집할 때가 있었죠. 지금은 명조체뿐 아니라 고딕이나 다른 글꼴을 사용하기도 해요. 홍성택 대표님이 안그래픽스에서 10년 일한 후 홍디자인을 설립하셨어요. 그 즈음(2000년 전후) 그 분이 몇몇 프로젝트에서 ‘명조체’만 쓰는 작업을 선보였어요. 홍성택 대표님의 프로젝트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수류산방만큼은 명조체 위주로 작업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제목은 강조하기 위해 꼭 서체를 키우거나 바꿔야 할까요? 그런 생각은 ‘편의적인 발상’일 수 있어요. ‘서체 바꾸기’가 과연 ‘디자인의 본령일까?’를 고민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서체 바꾸기 관행에 ‘질문’과 ‘의심’을 던져본 거죠. 하나의 서체를 쓰더라도 위치와 크기에 따라 본문과 제목, 캡션 등 서로 다른 기능을 직관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을까, 조판 디자이너라면 그런 도전을 피하지 않아야 해요. 고전적인 편집과 서체 디자인 분야에서 예전부터 이런 실험과 작업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관성과 관행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일을 하시네요.

당시 박상일 방장님은 명조체만 사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한쪽 손을 묶고 한 손만으로 싸움을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한계 안에서 자유자재로 작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즉 명조체만으로 능수능란한 디자인 작업이 가능할 때 다른 글꼴을 쓰겠다.’ 수류산방에서 일하는 스태프 중에는 ‘제발 다른 글꼴도 쓰면 안 되냐.’라고 율상 짓는 친구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필요할 때 다른 글꼴도 쓰고 있어요. (웃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펴낸 정기간행물 <공예+디자인>은 독특한 편집과 디자인 작업으로 찬사와 혹평을 동시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일 방장님은 『지금, 한국의 북디자이너 41인』(프로파간다, 2009)에 소개되기도 하셨는데요. ‘수류산방이 지향하는 북디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예+디자인>은 ‘불편한 가독성’으로 느리게 읽도록 만들었어요. ‘속독(速讀)’이 아닌 ‘완독(緩讀)’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였죠. 몇몇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이 “최악의 디자인”이라고 ‘혹평’을 한 것과 달리, 발행기관과 독자는 ‘호평’을 해주셨어요.

수류산방은 소규모 디자인스튜디오에서 할 법한 디자인 스타일을 출판계의 편집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어요. 출판 분야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는데, 전문 디자인을 쉽게 번안한 저희 디자인을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20년 정도 책을 내다 보니 ‘수류산방 디자인 스타일’, 이른바 ‘산방 스타일’이 확산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떤 인용이나 언급도 없이, 저희 디자인을 ‘비슷하게 표현하는’ 사례를 보기도 하죠. 서점에 가서 책을 들춰보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수류산방 북디자인은 ‘장렬하게 전사한’ 디자인 힌트와 선례를 만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지’ 디자인 작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표지 디자인을 가장 나중에 합니다. 수류산방 책 표지만 모아서 보면, 일관성이 있다거나 ‘예쁜 표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용적인 면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병준 작가의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는 앞뒤 표지가 비슷합니다. 심지어 앞표지에 바코드와 책값도 있죠. 『도시마: Toshima』(정세영, 2009)와 『한국의 자연유산』(이선, 2009), 『예술사 구술 총서, 예술인·生』 시리즈, 『이남규李南奎 1931~1993: 한국의 서정 추상 화가』(이남규, 2013)는 책 재킷을 펼치면 한 장의 포스터가 되도록 작업했어요.

다만 표지 작업을 할 때 ‘원칙’은 있습니다. 표지는 그 책의 본문과 동일한 그리드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한국 출판물에서는 본문 그리드를 가지고 표지를 만드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수류산방은 앞표지부터 본문, 책을 덮을 때까지 이어지는 시각적 경험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출판사들에서 내는 책 중에 표지와 본문 디자인이 따로 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수류산방은 그렇지 않아요. 수류산방은 본문의 틀과 포맷을 최대한 완성한 다음에, 표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 갑니다.

우문(愚問)입니다만, ‘디테일’과 ‘크리에이티비티’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수류산방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인터뷰 자리에 함께 한 김용한 이사님이 답을 해주셨다.) “수류산방에서 디테일과 크리에이티비티는 분리할 수 없어요. 디테일 없이 크리에이티비티는 존재할 수 없고, 크리에이티비티 없는 디테일은 공허할 수 있죠.”

기획과 편집, 디자인에 들이는 공력만큼 '제작'에도 각별히 신경 쓰실 듯합니다. 수류산방은 인쇄 감리를 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류산방 초창기 10년은 박상일 방장님이 직접 감리를 했어요. 저희 책이 제작 난도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작처에서 '그런 종이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거나 '도대체 어떻게 작업하라는 거냐?'라며 되물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행히 제작에 자부심을 가지고 실험해 보거나 퀄리티 관리를 잘 해주는 거래처를 만나면 한시를 놓죠.

요즘도 인쇄소나 여러 제작 업체를 찾고, 배우고, 함께 상의하는 건 수류산방 PD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예전에는 박상일 방장님이 인쇄소에 직접 가서 '밤샘'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중간에 '제작 사고'가 나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죠.

가장 최근에 출간한 『건축의 무빙』도 의도한 대로 제작되지 않아 박상일 방장님이 굉장히 난감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표지의 규격과 두께를 제본소 가이드대로 마무리했는데, 책을 받아 보니 1mm 정도 더 크게 작업하는 게 맞았습니다. 접지도 더 깔끔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본도 '환양장(책등이 둥글게 잡힌 형태)'으로 작업을 요청했는데, '각양장(책등이 평평한 형태)'으로 나왔어요. 새로 나온 수입 친환경 용지를 시도해 봤거든요. 제작 업체에서 생소해서 그랬는지, 표지가 더 두껍게 나오지 않아서 손에 쥐었을 때 탄탄한 느낌이 덜 나더라고요. 자잘한 아쉬움들이지만, 디테일에서 저희 실험의 완성도가 결판이 납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대형출판사로부터 임프린트 제안을 받지 않으셨나요?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안정적인 '출판 실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수류산방을 걱정하는 몇몇 분이 '안정적으로 출판을 하려면, 대형출판사 임프린트로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긴 했죠. 그런데 수류산방의 출판 스타일과 사업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형출판사가 있을까요?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수류산방의 책 이야기

단행본 출판사는 독자에게 팔릴 책을 기획해서 책을 만들고,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류산방의 출판 프로세스는 이와 다른가요?

단행본 책을 만드는 출판 프로세스 자체는 같아요. 다만 다른 출판사가 '팔릴 책'에 집중한다면, 수류산방은 '팔리지 않을 책'이라도 만들기로 결정하곤 합니다. 안 팔린다고 가치를 지니지 않는 책일까요? 수류산방은 '말로 된 책'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책', '말이 되어야 할 책'까지 만듭니다.

수류산방 단행본은 문화예술 분야 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방장님이 생각하는 수류산방의 '출판 분야' 또는 '출판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출판 분야나 키워드가 따로 있진 않았어요. 전진삼 선생님이 만드시는 건축 잡지 <와이드WIDE>의 디자인을 몇 년 맡기도 했거니와, 한때 건축사 조성룡 선생님과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건축과 관련된 일이 계속 이어지긴 했죠. 심세중 대표님이 예술과 미술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분야 책도 조금은 했어요. 책을 그때그때 만나는 분들의 인연으로 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분야 책이 많아졌습니다.

'사업 영역'과 '출판 분야'를 좁힐 생각은 안 하셨나요? 분야를 좁히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이 쉬울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출판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서서 '출판 분야'를 좁힐 생각은 하지 않았죠. 저희를 찾아왔거나, 저희가 만나게 된 원고나 분야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내맡기는 편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업무 역시 사사(社史)나 특정 영역으로 좁히자는 구상이나 논의를 한 적은 없어요. 일을 하다 보니 '아카이빙' 성격이 강한 작업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어찌 보면 '효율'을 생각하지 않는 작업 방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야를 좁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작업하는 분야가 모두 연결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분야를 가리진 않지만, 문학은 선불리 다가갈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책 『20세기 건축의 모험』이 수류산방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건축의 모험: 건축가 이견섭과 책을 타고 떠나는 현대건축과 디자인 여행』(2005)은 수류산방의 편집과 디자인 방식에 단초가 된 작업이에요. 수류산방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작업해본 건 이 책이 처음이었죠. 실험적인 시도가 많은 만큼 오류도 많은 책이에요.

박우진 사진가에게 특별히 요청해서 3개월 동안 촬영한 사진들이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했어요. 팁과 주석 역시 보조적 장치에 머물지 않고, 본문과 비슷해지도록 새롭게 처리했어요. 책에 넣고 싶었던 온갖 아이디어를 이 한 권에 다 담아 본 셈이 되었습니다. 이 책 때문에 수류산방이 출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수류산방의 '첫 책'이 되었죠.

출간한 모든 책이 각별하겠지만, 수류산방 책 중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책이 있나요?

방금 말한 이견섭 선생의 『20세기 건축의 모험』과 이선 선생의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2006)이 초기의 중요한 책입니다. 두 권 다 저희가 기획했다기보다 인연이 닿아 세상에 나온 책인데요. 책을 만들면서 저자와 신뢰가 많이 생겼어요. 갈등을 겪으면서 신뢰가 쌓였죠.

수류산방은 ‘출판사가 일을 의뢰하는 출판사’로 유명합니다. 2011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문학동네 시인선』은 어떻게 맡게 되셨나요?

『문학동네 시인선』은 김민정 시인과 문학동네 경영진이 ‘결단’하면서 탄생했어요. 『문학동네 시인선』 담당자였던 김민정 시인은 처음엔 표지 작업만 의뢰했어요. 수류산방은 ‘표지’와 ‘내지’를 일관성 있게 작업하기 때문에 표지만 작업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죠. 그래서 전체 디자인을 다 맡게 됐어요.

『문학동네 시인선』은 여러 가지로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자 약력을 뒤표지로 뺀다거나, 연을 표시하는 가로줄을 넣거나, 앞표지에 출판사 로고도 없습니다. 옆으로 넘기지 않고 ‘위로 넘기는’ 방식도 파격적이구요. ‘일반판’과 ‘특별판’ 2가지로 선보인 것도 독특한 시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시도를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민정 시인이 디자인 방향에 대해 특별한 요청을 하진 않았어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집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고심 끝에 ‘시집이 시각적·촉각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실험적 방식을 많이 도입했어요. 그것이 ‘특별판’ 형식이 되었습니다. 첫 제안 때 특별판은 ‘무선’이 아니라 ‘중철’ 제본이었어요. 중철 제본이 채택되지 않은 건 제작처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분량을 당시에 일반 중철로 제본하기 어려웠거든요.

당시 관행이던 시집 디자인을 생각하면, 수류산방 안이 받아들이기 쉬운 제안은 아니었을 거예요. 문학동네 측은 수류산방 안을 다 수용하되, 대신 ‘일반판’을 추가하기로 했죠. 시집이 2가지 판으로 나온 건 그 때문이에요. 2011년 『문학동네 시인선』이 출간되면서 시집 복디자인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여깁니다. 그 점에서 보람을 느껴요.

다섯 권으로 나온 『예술사 구술 총서, 예술인·生』 작업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 책은 본문과 주석의 배치가 무척 독특합니다.

『예술사 구술 총서, 예술인·生』는 구술 내용을 오른쪽 면에, 팁과 주석, 사진을 왼쪽 면에 넣었어요. 주석과 본문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이었죠. 『20세기 건축의 모험』에 적용한 주석 배치 방식을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시켰어요. 『20세기 건축의 모험』은 각주나 미주를 쓰지 않고, 본문에 주석을 바로 넣었거든요.

구술 원고에는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인물과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인물과 용어를 알아야 구술 내용이 이해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눈에 지면을 펼쳐볼 수 있는 ‘신문’ 형식을 떠올렸어요. 주석과 팁이 너무 많다 보니, 생각해낸 방식이었죠. ‘하나의 판면에서 독자가 궁금한 내용을 최대한 해결하자.’라는 구상이었어요. 각주도, 미주도 아닌 새로운 주석 처리 방식이죠. 이 방식이 독자가 읽기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우리 전통에서는 『대승기신론소』나 『논어집주』, 『금강경오가해』처럼 ‘주(註)’를 달거나 ‘소(疏)’를 다는 것이 저술 방식의 하나였어요. 서구에서 사용하는 각주나 미주는 그들의 편의에 의한 주석 처리 방식일 수 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원칙’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석’이 하나의 ‘저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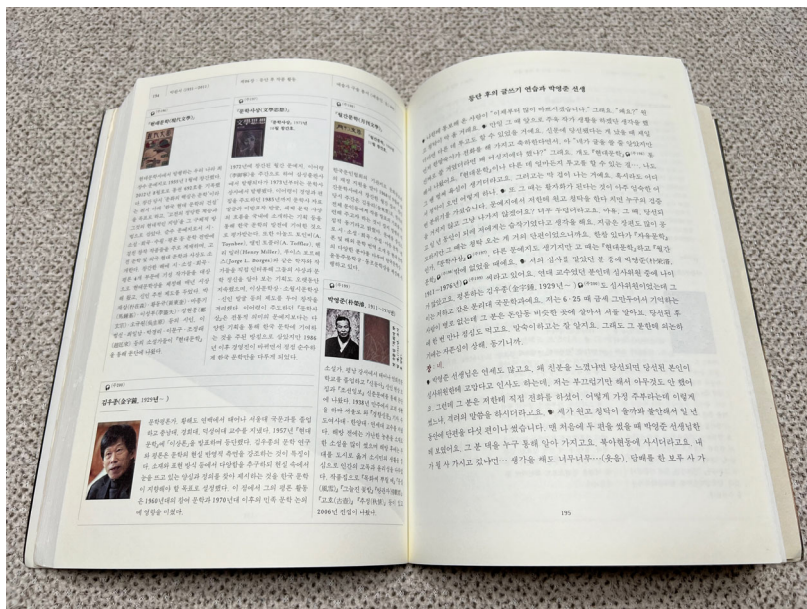
되는 우리 전통을 살리고, 하나의 판면에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자고 결정했어요. 이런 고민 속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박용구, 전혁림, 장민호, 장기인, 박완서까지 다섯 권으로 완간된 『예술사 구술 총서, 예술인·生』이 탄생했습니다.

구술 자료를 책으로 묶어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요?

『예술사 구술 총서, 예술인·生』의 구술 원고를 처음 받았을 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고유명사를 비롯해 오류가 꽤 있었어요. 내용이 빈약한 부분도 많았죠. 채록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원고가 부실하다고 책을 대충 만들 수는 없잖아요. 구술 내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방대한 주석 작업을 추가해서 책에 반영했어요. 주석은 수류산방에서 전부 작성했어요. 박용구, 전혁림, 장민호, 장기인 선생님의 책을 거쳐 다섯 번째 작업이 박완서 선생 책(『박완서朴婉緒 - 1931년~2011년』)이었어요. 박완서 선생 책은 박완서 선생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여서 구술자 분께 내용 검토를 요청드릴 수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심세중 대표가 박완서 선생의 전작을 모두 읽고, 주석 작업을 진행했어요.

박완서 선생 구술 총서 작업을 할 때 다른 출판사로부터 ‘왜 구술 자료를 책으로 내려고 하느냐?’라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박완서 선생 따님이 정말 고맙다고 따로 연락을 주기도 하셨어요. 저희 작업을 통해 박완서 선생 ‘연보’가 제대로 정리되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박완서朴婉緒 - 1931년~2011년』: 구술 내용과 주석, 팁, 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신문’ 형식을 도입했다.

수류산방은 고객을 쫓아다니지 않고, 고객이 찾아오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매일유업 사사 『매일 50』도 매일유업 회장님이 직접 수류산방을 찾아와 작업을 의뢰했다고 들어요. ‘한 회사의 역사’를

넘어 '낙농사'를 정리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매일유업 김정완 회장님이 수류산방을 직접 방문해서 제안을 주셨어요. 2016년 12월이었을 거예요. 밤샘 작업하고 새벽에 양치하고 있을 때 회장님이 수류산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저희에게 제안 주시기 전에 매일유업 사사 작업을 할 곳을 직접 알아보셨나 봐요.

김정완 회장님은 말 그대로 매일유업의 역사를 넘어 '낙농사'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2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료가 충분치 않았고, 흩어져 있어서 작업하기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이 매일유업 내부 자료를 많이 활용했죠. 낙농사를 정리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나라 근대 유가공업의 역사를 연보로 정리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연보 형태로 아카이빙 했을 뿐 낙농사를 '해석'하진 않았어요.

공자가 말한 '술이부작(述而不作)'의 관점과 통하네요.

수류산방은 사실을 선불리 평가하지 않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경우 균형 있게 제시하려고 노력해요. 수류산방 작업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매일유업 김정완 회장님이 전폭적으로 믿어주셔서 『매일 50』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매일 50』은 2020년 iF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셨잖아요. 또 다른 사사의뢰는 없었나요?

매일유업 사사가 계기가 되서 제약회사인 한독의 사사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독에서 『매일 50』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한독약품 70년사』를 수류산방에 제안해 주셨어요. '한독 역사'와 함께 '약업사'를 함께 정리하고 있어요. 매일유업도 그랬지만, 회사에서 공공역사를 함께 정리하려는 마인드가 있어서 가능한 작업일 거예요. '약업사'는 단행본으로 출판되면 좋겠어요.

문화재청 의뢰로 2007년 발간한 『궁궐의 현판과 주련』(전3권)은 처음에 '국판' 사이즈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형이 커진 건 문화재청의 요구 때문이었나요?

수류산방은 책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국판'으로 제안했어요. 문화재청에서는 '품 나는 판형'을 원하셨죠. 『궁궐의 현판과 주련』은 2006년 문화재청의 학술조사 연구용역 『궁궐 현판의 이해』와 『궁궐 주련의 이해』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문화재청에서 '내부 연구물'을 '대중 출판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류산방과 연결됐어요.

문제는 보고서에 내용 오류가 많았다는 점이었어요. 바로잡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서울의 5대 궁궐을 모두 방문해서 현판의 위치와 내용을 일일이 대조했어요.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증했죠. 작업 기간이 길어지니 문화재청 담당자도 애를 먹었어요. 다행히 책이 나왔을 땐 담당자도 좋아하셨어요.

이 책은 별 반응이 없다가,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 교수님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 서울편 1』 (창비, 2017)에서 ‘궁궐 답사 때 꼭 지참하는 책’으로 언급하면서 주문량이 늘었어요. 유홍준 교수님과 수류산방은 친분이 전혀 없는데, 책에서 소개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책이에요. 수류산방의 스테디셀러죠. 2007년 책이 나왔으니까, 출간한 지 16년 흘렀네요. 오랜 기간 팔린 책이라 ‘관리비’가 더 들긴 했어요. 회사 살림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서울시에서 2014년 발간한 『민선5기 공공임대주택 8만호 백서』는 2~3개월 안에 납품해야 할 책이었다고 들었어요. 이 백서를 1년 가까이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官)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는 기관 일정애 맞추는 경우가 일반적이데요. 담당 공무원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짧은 기간에 백서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자기 좀 살려 달라고 밤까지 버티기도 하고, 납품 기한을 ‘각서’로 요청해서 써주기도 했어요. 작업 난도가 높다는 걸 알게 되면, 담당자들도 사업을 연장하거나 과업을 바꾸는 식으로 ‘방법’을 찾아주세요.

『민선5기 공공임대주택 8만호 백서』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상당수 세대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어요. 주민 인터뷰도 직접 했죠. 주민뿐 아니라 건축가, 관리인, 주변 이웃과 부동산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만났어요.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주민의 생활과 불만까지 백서에 담았어요. 작업 과정은 힘들었지만, 서울시가 다음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죠. 책으로 그치는 백서도 많잖아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백서를 만들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수류산방의 책 판권에는 프로듀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들어갑니다. 『20세기 건축의 모험』 판권에는 ‘이미지’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수류산방만의 ‘판권 표기 정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세기 건축의 모험』 판권 이미지는 잘 몰라서 넣었어요. (웃음) 발행인 위주로 판권을 표시하는 출판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가서.장 시절부터 ‘판권 실명제’를 적용했습니다. 수류산방은 책에 기여한 사람과 참여한 사람을 모두 판권에 표기해요. 이름도 한글뿐 아니라 영문까지 모두 병기합니다. 실낱같은 도움을 주신 분도 빠짐없이 넣어요. 근무한 사람과 기여한 사람을 분리해서 판권에 넣기도 해요.

수류산방에서는 에디터, 디자이너를 나누기보다는 기획부터 책 출간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이끈 사람을 ‘프로듀싱’으로 표기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수류산방은 스태프를 PD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리서치나 취재, 편집과 디자인, 제작까지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일하기 때문이죠.

수류산방이 출간한 책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어떤 책이고, 몇 부 정도 팔렸는지 궁금합니다.

『궁궐의 현판과 주련』이 1권부터 3권까지 세 권이거든요. 부수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일 거예요. 『20세기 건축의 모험』,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 『한국전통공예: 18세기 조선의 일상과 격조』 (2007), 『이응노의 집, 이야기』도 여러쇄를 찍었어요. 조병준 작가님의 『퍼스널 지오그래픽』과 황현산

선생님의 강의를 『전위와 고전: 프랑스 상징주의 시 강의』(2021)은 기간 대비 많이 팔린 책일 거예요. 가장 빨리 2쇄를 찍은 책이죠. 이번에 출간한 『건축의 무빙』도 엄청난 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웃음)

수류산방 작업 중 가장 아쉬운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인가요?

책 작업을 마칠 때마다 너무 지쳐서 아쉬울 여력도 없어요. 하지만 작업을 마무리할 무렵이면 ‘지금부터 만들면 정말 잘 만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수류산방 책 2쇄는 ‘2쇄’가 아니라 ‘2판’, 즉 ‘개정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웃음)

애써 만든 책인데, 독자에게 선보이지 못한 책들이 아쉽긴 합니다. 서울시 요청으로 2020년 발간한 『서울 옛길』 10종은 지도부터 사진, 설명까지 수류산방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이거든요. 옥류동천길부터 삼청동천길, 안국동천길, 제생동천길·회동천길, 북영천길, 흥덕동천길, 목사동천길, 필동천길, 남산동천길, 정릉동천길까지, 물길에 따라 ‘서울의 옛길’을 정리한 프로젝트였어요. 내년(2024년)에는 서점에서 판매용으로 선보이고 싶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요청으로 2018년 발간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20권도 일반 독자를 만나지 못한 책이라 아쉬움이 남아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은 김금화(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김병옥(양주소놀이굿), 김인(갯일), 김실자(강령탈춤), 김정순(강령탈춤), 김표영(배첩장), 노재영(양주별산대놀이), 박기하(강릉농악), 박용기(장도장), 박창규(은산별신제), 서한규(채상장), 이봉주(유기장), 이수여(망건장), 이양교(가사), 이영수(악기장), 이윤란(경기민요), 이은관(서도소리), 임석정(불화장), 조홍복(수영야류), 황영보(백동연죽장), 이렇게 20명의 장인이 구술한 내용을 묶어낸 책입니다.



『서울 옛길』(전10권) : 물길 따라 서울의 옛길을 복원한 수류산방의 역작

보통 단행본 출판사는 책 ‘만들기’뿐 아니라 ‘알리기’와 ‘팔기’에도 큰 관심을 갖습니다. 수류산방에서 출간한 책은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하시나요?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영업과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애초에 판매를 생각하지 않고, 출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서, 마케팅과 홍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예상만큼 팔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자 분들에게 미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SNS도 인스타그램 (@suryusanbang) 정도만 운영해요.

(이 대목에서 인터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조병준 작가님이 ‘수류산방은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한 달에 겨우 2번 올린다.’며 저격(?)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곧바로 조병준 작가님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솔직히 저자 입장에서 아쉬울 때가 있죠. 하지만 수류산방이 한정된 에너지 속에서 책의 홍보와 마케팅까지 신경 쓴다면, 지금 같은 퀄리티의 책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책 만들기에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쏟는 출판사죠.”

전자책 같은 디지털 출판물은 안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류산방은 ‘디지털 출판’에 대해 관심이 없나요?

디지털 출판물은 당분간 낼 생각이 없어요. 아날로그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영역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디지털 텍스트가 책일까? 디지털로 읽는 경험이 독서와 동일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도 가지고 있어요.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다르듯 종이책과 전자책도 같을 수 없을 거예요. 수류산방은 종이와 물성에 바탕을 둔 아날로그 출판에 집중하고 있어요.

수류산방은 ‘언저리’에 자리하는 출판사를 자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저리 또는 비주류 출판사치고는 많은 상을 받지 않으셨나요?

수류산방 이름으로 내진 않았지만, 디자인하우스 시절 작업한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가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권’으로 선정됐어요. 『예술사 구술 총서, 예술인·生』은 2011년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어요.

2015년 한국 출판사로는 처음으로 파주북어워드 출판미술상을 수상했습니다. 파주북어워드 출판미술상은 동아시아(한국, 중국, 대만, 일본)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권의 책이 아닌 출판사가 지금까지 해온 전반적인 작업 경향을 심사해서 주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류산방이 해온 디자인 작업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를 해주셔서 기뻐했습니다. 매일유업 50주년 사사 『매일 50』은 2020년 iF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부문 상을 받았어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여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위와 고전』과 『나무 신화』(2021)는 각각 2021년·2022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수여하는 제2회 한국출판편집자상 특별상 수상자로 수류산방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건축의 무빙』 출간기념회 때 건축 사진가 김재경 선생님이 촬영한 수류산방(©수류산방, 김재경)

20주년 그리고 수류산방의 미래

예전 인터뷰를 보니까 수류산방 책을 모아 '동네도서관'으로 개방하고 싶다는 구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구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셨나요?

수류산방은 4~5만 종 정도 되는 장서를 가지고 있어요. 수류산방 장서를 바탕으로 새로 이사 온 신문로2가(경희궁길) 건물 지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수류산방에 대해 갖는 궁금증 중 하나가 '수류산방처럼 출판해도 먹고 살 수 있나?' 하는 질문일 듯합니다. 수류산방의 사업 모델은 '지속가능'한가요?

수류산방처럼 출판해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출판사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여 책을 만들지만, 판매량은 많지 않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단행본 출판 사업만 보면, 수류산방의 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저희는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통해 출판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클라이언트로부터 외주 받은 작업을 하고, 남은 시간에 단행본 출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단행본 출판사의 사업 구조와 많이 달라요. 수류산방이 일반 출판사의 모델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2003년 ‘무자본’으로 창업하셨잖아요. 20주년을 맞는 요즘 수류산방의 형편은 나아지셨나요?

나빠졌다고 하긴 그렇지만, 비슷해요. 일하는 공간은 나아졌지만, 재정적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지만 ‘이대로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빛’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발전을 했네요. (웃음)

어차피 돈이 남아도 저희는 다음 책 출판하느라 돈을 다 쓸 사람들일 거예요. 출판을 안 했으면, 그동안 번 돈으로 외제차를 타고 다녔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수류산방 안에서도 손실이 큰 단행본 출판 사업을 접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늘 나오기는 해요. 한국 출판시장이 ‘싼 책값’에 기대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로 승부하려는 시도 자체가 살아남기 어렵죠. 수류산방은 저희를 응원해주는 분들께 ‘빛’을 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류산방은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출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낭만출판’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물처럼 흐르지(水流) 않고 나무와 흐름(樹流)이라는 불가능한 작업을 했을 때부터 수류산방의 정체성은 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본주의 셈법’에 맞지 않게 일을 하고 출판을 하는 게 ‘틀린 접근’일까요? 이런 비주류적인 발상 때문에 수류산방은 늘 마이너리티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저리’에서 출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중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과 ‘언저리’도 있잖아요. ‘언저리’도 세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일부입니다.

누구보다 정성 들여 책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출판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판에 대해 ‘환상’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독립 출판을 해보겠다거나, 저서를 쓰며 여생을 보내겠다거나... 대한민국 인구 규모가 늘고, 우리 사회의 지적·심미적 기준이 높아진다면 모를까, 출판의 미래가 밝다고 보진 않아요. 책값이 현실화되고, 지적 작업물이 돈이 되는 사회가 과연 올까 싶어요. 우리 사회는 외제차를 타면서 책은 공짜로 얻으려는 사회예요. 책을 값싼 제품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출판의 미래는 어둡죠.

(인터뷰 자리에 함께 한 조병준 작가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였다.) “한국 사회는 지적 생산물에 대해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한 적이 없어요. 원고료와 강연료도 수십 년째 그대로이고, 책값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된 적이 없죠.”



수류산방 사람들(왼쪽부터 박상일 방장, 조병준 작가, 심세중 대표, 김용한 이사)

미국의 출판인 밥 스타인(Bob Stein)이 “성공하는 출판사는 저자나 독자 주위에 커뮤니티를 만든다.” 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2014년에 수류산방을 아끼는 분들이 출판사 어려운 형편에 보태라면서 ‘낭창 낭창편당’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모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자본’으로 출발한 수류산방이 20년 동안 지속한 이유는 수류산방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열성 팬’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솔직히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수류산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수사모)’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정성을 모아주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펄펄 울었습니다. ‘수사모’에서는 저희에게 출판사 살림에 보태라고 돈을 모아주셨지만, 귀한 돈을 헛되이 쓸 수는 없었어요.

‘수사모’에서 모아주신 돈으로 수류산방의 10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세상에 이런 책!: 수류산방 樹流山房 11년의 모험 2003→2014→』(2014)를 출간했어요. 그해 여름(2014년 7월 8일~8월 17일) 남촌 컨트리클럽 미술관에서 수류산방이 출간한 단행본 100여 점, 포스터, 저희와 함께 한 작가들 작품까지 모아 전시회도 열었어요.

‘수류산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수사모)’은 아직도 활동 중인가요?

수사모 분들과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황현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모임을 자주 갖지는 못하고 있어요. 연락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류산방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류산방이 특별히 뭔가 기념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류산방 첫 책으로 냈던 『20세기 건축의 모험』을 『건축의 무빙』으로 다시 작업해서 출간했습니다. 『건축의 무빙』은 『20세기 건축의 모험』과 최대한 같아 보이도록 작업을 했어요. 똑같아 보이지만, 작업 과정은 다르게 해서 책을 냈습니다. 옛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해 필름 제판 했던 책을 디지털 조판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출간하는 『건축의 무빙』을 '리뉴얼 에디션'이 아니라 '리마스터링 에디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책을 다시 내면서, 20년 동안 우리가 뭘 했었는지를 처절하게 '복기'해보는 과정을 거쳤어요.



『건축의 무빙』과 『20세기 건축의 모험』: 수류산방의 20년 세월을 관통하는 두 권의 책

마지막으로 30주년을 바라보면서 수류산방이 가지고 계신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임대로 이사 온 이 건물을 사는 거요. (웃음) 밀려 있는 원고들을 책으로 빨리 내고 싶어요. 특히 예술평론가 박용구 선생님 선집과 민속학자 윤병하 선생님 전집은 꼭 내야 할 책이에요. 두 분뿐 아니라 아직 내지 못한 원고를 책으로 내는 것이 수류산방의 과제이자 구상이에요. 저희가 지고 있는 '책빛'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어요.

박상일(수류산방 방장)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대한항공(KAL) 기내지 <모닝칼 Morning Calm>의 기획 및 편집 업무로 출판계에 입문했다. 1992년부터 6년여 동안 SK그룹 발행 대학생 잡지 <지성과 패기> 편집장을 지냈고, 1996년부터 동인 체제로 운영되었던 출판사 '박가서.장'과 편집 회사 '박가공.장' 대표로 활동했다. 이 기간에 편집자 실명제를 일찍이 도입해 편집자의 위상과 영역을 확장하고자 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디자인하우스에 재직하면서 DES 사업 본부장과 월간지 <DOVE> 편집장을 지냈다. 2004년 이후 출판과 디자인, 전시 등 복합 문화 활동을 지향하는 수류산방에서 설립 때부터 프로듀서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지금, 한국의 북 디자이너 41인』에 선정되었고(프로파간다), 2011년부터 『문학동네 시인선』의 편집 디자인을 혼자 맡으며 지금까지 총 203권을 디자인했다. 2011년에는 국립예술자료원과 함께 『예술사 구술 총서』를 출간하기 시작해 그해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그래픽 디자인 부문)'를 수상했다. 2012년 배재학당역사 박물관과 한글에 대한 전시를 기획했고, '페이퍼 로드: 지적 상상紙의想像의 길(Reading Asian culture on the paper road)' 외 디자인에 관련된 몇몇 국제전에 초대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남촌 갤러리(Namchon Gallery)에서 초대전으로 '세상에 이런 책!'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2015년 서울건축문화회에서 '올해의 건축가 조성룡 전'을 기획했고, 동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파주 북 어워드'에서 출판 미술상을 받았다. 이는 상이 제정된 이래 출판 미술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수상이다. 같은 해 파주 국제 워크숍 '동아시아 책의 교류'에서 강의했고, 2016년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7년 보안여관에서 열린 '건축의 소멸: 소록도 전'을 기획했다. 2021년과 2022년 두 해 연속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책 10" 공모에 선정되었다.

eeshon@hanmail.net

심세중(수류산방 대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성균관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에서 건축 도시 디자인 과정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시 기획과 편집 분야를 오가며 일하고 글을 썼다. 1997년부터 실험 무크 <보고서/보고서>, 1999년부터 월간 <디자인> 에디터로 일했고, 안그래픽스를 거쳐 2003년 말에 수류산방 설립에 합류했다. 2019년 문화재위원(세계유산분과)에 임명되었고, 2020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융합대학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쓴 책으로 의재 허백련 선생을 다룬 책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 『건축과 풍화』(공저)가 있다.

sejs@chol.com



백창민(북헌터 대표)

책을 좋아해 '책사냥꾼'이 되었다. 전자책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디지털과 아날로그 출판 분야를 넘나들며 일했다. 책생태계 중심으로 글쓰기, 말하기, 만들기를 하고 있다. 『세상과 도서관이 잇은 사람들』과 『도서관 그 소중한 역사』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bookhunter72@gmail.com

<https://www.facebook.com/bookhunter>

서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시업체 면적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약 80%까지 회복하며 다시 활력을 되찾은 모습이었고, 도서전의 꽃이자 신간 저작권 계약이 이뤄지는 에이전시 센터(Literary Agents & Scouts Centre)는 총 548개의 테이블이 일찍이 마감되며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2023 FBM에 참가한 한국의 에이전시 담당자들은 한국 문학의 높아진 위상을 증명하듯 도서전 전부터 쏟아진 해외 출판 관계자들의 미팅 제안으로 30분 단위로 짜인 빼곡한 일정표를 소화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 보였다.

혼란 속에 시작된 2023 FBM

2023 FBM 개막을 앞둔 주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위기는 도서전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CEO 유르겐 부스(Juergen Boos)의 친이스라엘적 입장을 취하는 발언*을 하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산하기관인 리트프롬(Litprom)이 팔레스타인 작가 아다니아 시블리(Adania Shibli)에게 수여하는 ‘2023년 리베라투르상(LiBeraturpreis)’ 시상식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항의하며 개막식을 앞둔 주말 인도네시아 참가사들과 아랍출판협회(Arab Publishers Association), 에미레이트 출판사협회(Emirates Publishers Association), 샤르자 도서청(Sharjah Book Authority) 등이 도서전에서 철수했다. 리베라투르상 시상식은 1988년부터 매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시상해왔다.

*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2023 FBM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이스라엘 출판사 등이 도서전 측에 참가 취소 이메일을 보냈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CEO 유르겐 부스가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도서전 개막 전 주말 아랍출판협회 등이 참가 철수를 결정했다. 이후 도서전 개막 기자회견에서 유르겐 부스는 논란에 대해 “오해”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들 모두에게 동정심을 표한다.”고 입장을 수정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 정세에도 불구하고 도서전은 활기를 띠었다. 영국의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인 가이아 빈스(Gaia Vince)의 “기후 위기가 인간 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도서전에서는 기후 변화, 민주주의 위기, 전쟁 등 국제 분쟁에 대한 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하여 지속가능성, 인플레이션, 표현의 자유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주제까지 그야말로 거대 담론의 장으로서 도서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관(좌), 리모델링한 5.1홀과 6.1홀 로비 사이에 마련된 새로운 인터내셔널 스테이지(우)

전년에 비해 전시도 규모 있게 치러졌다. 올해는 리모델링한 5홀 1~2층을 추가로 개방하여 3홀, 4홀, 6홀의 1~3층까지 총 10개 전시 홀을 사용하였고, 6.1홀에는 만화 센터(Comics Centre)를 새로 열어 국제 만화 시장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했다. 일반 관람객이 입장하는 주말에는 코스프레를 한 방문객들이 일본 만화 섹션에 몰려 일본 만화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서도 6.1홀에 한국공동관을 운영하여 한국 만화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고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주로 일본 만화를 출판하고 있는 독일 만화 출판 전문 업체인 알트라버스(Altraverse)는 K-POP 등의 영향으로 유럽 독자들 사이에서 한국 만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만화 출판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학번역원 등도 6.1홀 국제관에 자리를 잡고 한국의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작년보다 부스 규모를 40% 확장하여 출판사 및 에이전시 등 17개 참가사와 종합 부스를 마련해 한국의 책 전시와 함께 저작권 교류를 위한 기회를 모색했다.



일반 관람객이 입장하는 주말에 많은 인파가 몰린 3홀

한편 일반 관람객이 입장하는 주말 이틀 동안의 방문객 수는 지난해 대비 30% 이상을 넘어섰는데, 펍 권랜덤하우스 등 대형 출판사와 독일의 출판사 그리고 아동·소설 분야 등 다양한 전시와 저자 사인회가 열린 3홀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관람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도서전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상당수의 참가업체가 부스를 철거해 일반 관람객들은 실망감을 안은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올해의 주빈국 슬로베니아 ‘단어의 벌집(A Honeycomb of Word)’

올해 주빈국이었던 슬로베니아는 도서전 첫날 ‘류블랴나 독서 선언문(Ljubljana Reading Manifesto)’을 발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선언문은 디지털화 과정이 독서에 미치는 사회적·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에게 독서 교육 장려와 현재의 독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하나인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는 행사 중 발표된 영상 연설에서 “민주주의 생존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독서가 중요하다”며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

을 가르친다”고 말했다. 도서전 CEO 유르겐 부스는 이 선언문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슬로베니아관에서 류블라나 독자 선언문이 발표되고 있는 모습(좌), 올해의 주빈국 슬로베니아관(우)

슬로베니아는 ‘단어의 벌집(A Honeycomb of Word)**’을 주제로 ‘독서’, ‘시’,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자국의 출판과 문화를 소개했다. 슬로베니아관은 자연채광에 중점을 둔 육각형 벌집을 모티브로 한 두 곳의 세미나관과 레이스로 만든 구름, 슬로베니아 산맥의 협곡을 형상화한 재활용이 가능한 품으로 만든 좌석, 슬로베니아의 숲을 반영하여 디자인된 서가로 슬로베니아의 풍경을 재현했다. 슬로베니아의 강점 중 하나인 ‘시’와 자국의 유명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 시인 밀라나 쿤타(Miljana Cunta) 등을 초청해 도서전 기간 동안 시인, 번역가, 지식인 등이 참여하는 7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슬로베니아에 관한 책’ 4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슬로베니아는 작년 주빈국인 스페인으로부터 게스트스크롤(GuestScroll)을 넘겨받은 이후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슬로베니아의 작가, 시인, 철학자, 음악가 등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를 개최했으며, 약 100여 권의 슬로베니아 도서를 독일어로 출판했다.

** 중남부 유럽에 위치해 있는 슬로베니아는 약 200,000개의 꿀벌 군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르올란벌(Carniolan bee)을 재배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올해 주빈국 슬로건인 ‘단어의 벌집’은 벌처럼 날아다니며 아이디어를 얻고 그곳에서 꿀을 추출하는 것과 같이 연결성, 포괄성, 지식, 문화 측면에서 아이디어 교환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담았다.

시와 철학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외에도 소규모 도서 문화권인 슬로베니아 도서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수익률이 낮은 도서 시장의 문화 정책”이란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서는 도서관 도서 구입 예산 및 번역 지원, 도서정가제 등 정부의 도서 및 출판사 자금 조달에 관한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슬로베니아 작가 타냐 투마(Tanja Tuma)는 “슬로베니아는 200만여 명의 인구에 비해 매년 많은 신간을 출판하지만 워낙 작은 도서 시장으로 1,000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로 간주된다”며, “인쇄 부수는 적고 출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출판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출판인 허버트 올링거(Herbert Ohrlinger)는 일부 출판사가 파산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시작된 오스트리아의 출판 보조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번역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상업적으로는 출판할 수 없었던 특정 도서를 오스트리아 시장에 출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3 FBM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

2023 FBM의 최대 화두는 책만큼이나 자주 언급되었던 ‘인공지능(AI)’이었다. 2023 FBM에서는 작가, 번역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챗GPT(ChatGPT)부터 학술출판, 번역, 저작권 문제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출판 분야의 AI 현황’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서는 독일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Mainz)의 도서학 교수인 ‘크리스토프 블래시(Christoph Bläsi)’, 영국에 본사를 둔 Shimmr AI의 설립자 겸 CEO인 ‘나뎀 사덱(Nadim Sadek)’, 스페인 폰타스 문학 및 영화 에이전시(Pontas Literary & Film Agency)의 설립자이자 문학 에이전트인 ‘안나 솔러 폰트(Anna Soler-Pont)’가 연사로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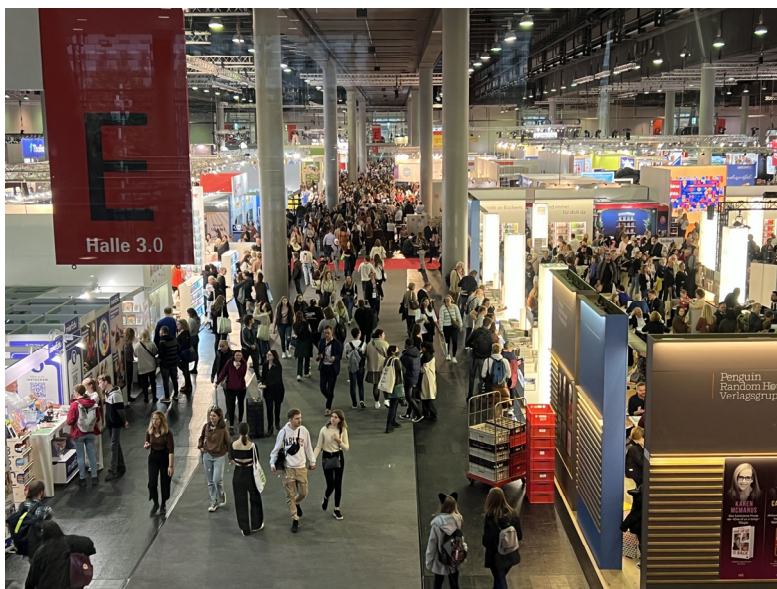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좌),
왼쪽부터 나뎀 사덱, 사회자 토마스 콕(Thomas Cox), 안나 솔러 폰트, 크리스토프 블래시(우) ©PW

먼저, 나뎀 사덱은 출판업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 광고를 생성하고 이를 미디어에 효율적으로 게재할 수 있어 구간도서와 신간도서 모두 더 쉽고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나 솔러 폰트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오디오북 및 번역과 관련하여 ‘예술 작품의 번역은 반드시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와 같은 새로운 계약 조항들이 생겼으며, 오디오북이 인간의 음성에 의해 녹음되지 않는 한 오디오 판권을 판매할 의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녀는 예술을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과 기술을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인공지능은 이미 ‘AI 번역 교정’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프 블래시 교수는 AI가 특히 유용할 수 있는 출판 작업으로 메타데이터 생성, 마케팅 카피, 분류 등을 꼽았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출판할지를 고민하고’, ‘그 콘텐츠를 어떻게 표현하여 만들 것 인지를 결정하는’ 출판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은 AI가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인공지능은 책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독자들이 더 얇게 분산되어 특정 도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날 대부분 연사들은 창의성의 미래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된다(And the story goes on)

올해 도서전 개막식을 앞두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측은 내년 주빈국인 이탈리아에 이어 필리핀(2025), 체코(2026)를 주빈국으로 발표했다. 필리핀은 2015년 동남아시아 최초의 주빈국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이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1976년부터 '주빈국(Guest of hon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올림픽이자 출판계의 만국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라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이 '주빈국'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회는 매년 한 나라를 선정해 주빈국으로 삼고, 해당 주빈국에 전시장 중 약 2,000평에 달하는 전시 공간을 제공하여 출판뿐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전반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주빈국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지역과 국가를 상대로 더 많은 출판물에 대한 새로운 판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3 FBM 도서전 풍경

한국은 2005년, 이미 한 차례 주빈국 행사를 치르며 세계적인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주빈국 제도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가 36년 만에 두 번째 주빈국 행사를 갖게 되었다. 브라질과 인도 역시 이미 두 차례 주빈국에 선정된 바 있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카탈루냐' 까지 합치면 세 차례나 주빈국 행사를 치렀다.

이번 전시 기간 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한 전자출판관 부스를 방문한 한국어 전공 독일 학생들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부터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며 한국 도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제는 주류로 자리 잡은 K-컬처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 문학 또한 주요 국제 도서상에 후보로 거론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국내 출판의 세계화에 걸맞은 홍보 방법과 전략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임을 실감했던 도서전이었다.

내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며, 이탈리아가 ‘미래의 뿌리(Roots in the Future)’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내년 도서전에서 한국 출판은 올해와 다른, 또 어떤 이야기로 세계 출판 시장의 이목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다시 한번 주빈국으로 자리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글을 마친다.

최민경(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정책연구팀)

출판
N